

한팩뷰

HanPAC View

Hanguk Performing Arts Center Magazine



2013. 12

HanPAC 한국공연예술센터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폐막작 <What the Body Does Not Remember>

2013 한팩 라
이징스타 2012 불작가 겨울무대
우수작 재공연 (황) 2013 한팩 솔로이스트
제3회 대학로 코미디 페스티벌 2013 불작가 겨울무대 차세대인무가 클라스 쇼케이스 마로니에 여름축제 원기 위한 두 달 간의 을 무대 가을상독회 이 공연인데 어떡하

래의 몸으로 돌아가 워크숍 불 작가 거 씨어터RPG - 내일 제!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제9회 서울아시테지 겨울 축제 아르코공연예술인큐베이션 연출가 부문 공연 "요람을 흔들다 III" JDT 정지운

댄스 씨어터 'Dialogue & Sound' 2013 템페스트 마스크 연극 소리별 이야기 부흥신 그 남자 춤추는 모자이크 no.5 완벽한 사랑+울프

What more 댄스를 위한 한 댄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2013 발레타

닝씨를 정기공연 (오늘) 돈데보이 제27회 한국무용제전-2013 세계 속의 한국문화 유산을 춤추다 빨간시 On the concept of the face regarding the Son of God 황금용 제27회 현대 춤 작가 12 인전 제3회 서울국제춤축제 제34회 서울연극제 채권자들 트라우마 수리공 국제현대무용제 모다페 2013 율미라

total theatre변기틀 (a total) 영리와 리처드 파리대왕 2013 신춘문예 단막극제/아시아연출가전 2013 젊은안무자창작공연 당침은 꿈꾸는가? 춤의 귀환 - 아름다운 발자취, 신무용가들을 위한 한정무대 까워의 (이방인) 레이디 맥베스 가을반

yesterday 그리고 또 벗나무 그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한 가문의 몰락사 Bird's eye view, 지금이거故최현 선생 11주기 추모 공연 (비상위) 2013 한국을 빛내는 해외무용스타 초청공연 비, 걸음 배우 없는 연극 말들의 무덤 노크하지 않는 집 2013박명숙의 춤황금가지, 혼자 눈뜨는 아침II" 음악극 '에릭사티' 2013 SCF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환상동화 2013 한팩 라이징스타 2012 불작가 겨울무대 우수작 재공연 (황) 2013 한팩 솔로이스트 제3회 대학로 코미디 페스티벌 2013 불작가 겨울무대 차세대

의 춤, 그 곁
고운 춤의 빛깔 무악자선 데모크 라시 광대 풍류를 타다. 하체 평론가가 밝은 제16회 젊은 무용가 초청공연 2013 하운 부의 듣는 춤, 보는 소리 (영무 靈武)

2013 베트남 전통 예술 공연 동불업 든 연극 정스더 온 불꽃 하나 one 2013-The Road-영 은 죽어간다 제7회 전국청소년연극제 장한몽: 이수일 과 심순애 그것은 제 장한몽: 이수일 은 어땠습니다. Dance Circle 21 - 정기공연 월령(月 靈)2 몸의 협주곡 강경모댄스프로젝트 정기공연 제1회 대 한민국예술원 연극 영화,무용전 공연 한 살인자 꽃상어 모데라토 칸타빌레 제34회 서울무용제 청산리에서 평화로 까지 (사)나는새 공 연예술진흥회 2013 신작공연 박재희 춤 50년 '강산연파' 세 일즈맨의 죽음 어머니 니 'MOTHER' 오울 공연 Untruth 레이 자 백남무용단 창작 제 라를 Mottif CeadoO, 2013 2013 신인 데뷔전 마 른 2013창작산실 지 원 사업 제작자 원 공연 이희문 MAMDAERO레퍼 트리 '12' 인형발레 No.1 백조의 호 수 소리에 이르다 2013 금강산리관 달국 2 13 황재성무 리 사재(死葬)의 서 용단 우수레퍼트 (書)II <Event Horizon> 명성향후 육완순 현대무용 50년 페스티벌 손숙 연기인 생 50주년 어머니 국악뮤지컬 (운향공 로 맨스) The Game - 죄와 벌 이것은 꿈이 아니다. : 산행

대안무가클래 스 쇼케이스 마로니에 여름축제 원래 의 몸으로 돌아가기 위한 두 달 간의 워크숍 불 작가 겨울 무대 가을상독회 씨어터RPG - 내일 이 공연인데 어떡하 제! 서울국제공연예술 예술아시테지 겨울축 인큐베이션 연출가 예술아시테지 겨울축 흔들다 III" JDT 정 지운 댄스 씨어터 "Dialogue & Sound" 2013 템페스트 마스크 연극 소리별 이야기 부흥신 그 남자 춤추는 모자이크 no.5 완벽한 사랑+울프 What more 댄스를 위한 한 댄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2013 발레타

닝씨를 정기공연 (오늘) 돈데보이 제27회 한국무용제전-2013 세계 속의 한국문화 유산을 춤추다 빨간시 On the concept of the face regarding the Son of God 황금용 제27회 현대 춤 작가 12 인전 제3회 서울국제춤축제 제34회 서울연극제 채권자들 트라우마 수리공 국제현대무용제 모다페 2013 율미라

of God 황금용 제27 인전 제3회 서울국 회 서울연극제 채권 회 서울연극제 채권 자들 트라우마 수리 공 국제현대무용제 모다페 2013 율미라 의 춤, 그 곁고운 춤의 빛깔 무악자선 데모크라시광 대-풍류를 타다. 하체 평론가가 밝은 제16회 젊은 무용가 초청공연 2013 하운부의 듣는 춤, 보는 소리 (영무 靈武)

2013년 한국공연예술센터 365일

2013년 **365**일 동안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소극장,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소극장, 3관
5개의 공연장 무대에는 **905**회의 공연이 올랐습니다.

객석에 앉으셨던 관객분들은 **157,252**명, (2013.11.25 기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608석, 소극장 92석,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504석, 소극장 132석, 3관 184석과
스튜디오 하이, 스튜디오 다락을 비롯한
창작 공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한국공연예술센터와 함께해주시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8명의 직원들은
2014년에도 더 많은 분들이 더 좋은 공연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공연예술센터 박계배, 유인화
- 김미송, 강수정, 강은석, 강재정, 곽현주, 권미영, 김건영, 김경남, 김동수, 김보연, 김상구, 김석현, 김선옥, 김성철, 김소연, 김예교, 김애나, 김연애, 김의숙, 김의진, 김인성, 김지은, 김재역, 김종화, 김진아, 도명호, 도성중, 류주이, 민세정, 박민호, 박병민, 박정은, 성윤진, 송윤정, 신동환, 신 호, 안현경, 오선영, 오인아, 왕우리, 이기복, 이동선, 이보소, 이상미, 이아름, 이유진, 이인연, 이재승, 이주호, 이주환, 이지민, 이지영, 이한규, 이홍철, 장보가, 정소은, 정재은, 조용우, 조자영, 진용남, 천원옥, 최민지, 최형오, 탁형선, 허선영, 황금실

* 2013년 한국공연예술센터에서 선보인 공연 제목입니다.

HanPAC View

2013. 12

Hanguk Performing Arts Center Magazine

한팩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공연예술센터'를 목표로 '동시대와 미래지향적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이끌고, 고객과 함께 호흡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열린 공연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표지이미지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폐막작 <What the Body Does Not Remember> ©Sang Hoon Ok

발행처 한국공연예술센터
 http://www.hanpac.or.kr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길 17
 T. 02-3668-0007 E. webmaster@hanpac.or.kr
 발행인 박계배
 편집인 정재은, 김의진

ReView

04

- 04 **월간일정** 12월 공연일정 Program schedule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 06 **SPAF** 2013 서울국제공연예술제 SPAF 25일간의 기록
- 10 **SPAF** 2013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긍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공연예술 발전에 동력원이 되길 | 이은경, 심정민
- 20 **연극** <빅토르 혹은 권좌의 아이들>
SPAF 에너지를 희생시킨 가장(假裝)의 연극 | 이용복
- 22 **연극** <손택:다시 태어나다>
SPAF 텍스트가 풍부하고 화려하게 시각화된 무대 | 김연수
- 24 **무용** <스푸마토> 재앙의 인생,
SPAF 그러나 물보라의 아름다움도 | 김경애
- 26 **무용** <왓더바디 더즈낫 리멤버>
SPAF 몸은 기억하지 않는다 다만 펄떡거리는 심장만 남길 뿐... | 이지현
- 28 **다원** <핀의 오후>, <소용돌이>
SPAF 기술이 예술이 되어 사물에 생명을 불어넣다 | 김예림
- 30 **연극** <크라임> 에너지와 흡인력 넘치는
SPAF 포스트모던 미학과 해체적 서사 | 김성희
- 32 **연극** 극단 SCOT의 <리어왕> 압도적 형식미에
SPAF 가려진 리어의 비극 | 이은경
- 34 **스포트라이트** 울티마 베즈의
SPAF 오디션 & 워크숍 | 오선명
- 52 **연극** <장록 속의 바다>, <미사여구없이>
새로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 최창근
- 54 **연극** 역사적 사실 바탕으로 오늘의 이야기 빛어낸 <뒤주박죽>
엇갈리는 태배를 소재 삼아 소외된 인간 그린 <태배 왔어요!> | 김나넷
- 56 **스케치** 새내기 기획자의 눈으로 본 '봄 작가, 겨울 무대'
예술가의 상상력을 관객과 만나게 하라 | 김소영
우리만 아는 이야기 | 권미영



Information

59

- 59 **News** 청소년과 함께 하는 한국공연예술센터
- 60 **News** 쾌적한 시설, 최고의 무대 인력, 저렴한 대관료
3박자가 잘 맞는 대학로예술극장 3관
- 62 **News** 국립예술단체와 업무협약체결 외
- 64 **book+stage** 이달의 도서
Theater cale 씨어터카페

PreView

36

- 36 **연극** 환상동화 Fantasy Fairy Tale
(주)이다엔터테인먼트 EDA Entertainment
- 38 **전시** Un:truth Un:truth
박종원 Park Jong Won
- 39 **무용** 2013 신인데뷔전 2013 Rookie debut
(사)한국현대무용협회 Contemporary Dance Association of Korea
- 40 **연극** 연극 레미제라블 Les Miserables
50대 연기자 그룹 Group of Actors of Fifty
- 41 **연극** 그 남자의 프러포즈 Propose for my love
극단 해반드르 Haebandre Theatre
- 42 **무용** 모티프 까두, 2013 Motif Ccado0, 2013
댄스씨어터 까두 Dance Theater CCAD00
- 43 **연극** 마흔 Forty
극단 청국장 Cheonggukjang
- 44 **무용** 2013 창작산실 우수작품전 현대무용
(재)국립현대무용단
- 45 **무용** 2013 창작산실 우수작품전 발레
(재)국립발레단
- 46 **연극** 이희문 오더메이드 레퍼토리 '雜'
Lee Heemoon Order-made Repertory 'JAB'
이희문컴퍼니 Lee Heemoon Company
- 47 **다원** 소리에 이르다 2013 Coming into the sound 2013
이대일 Lee Daeil
- 48 **무용** 인형발레 NO.1 백조의 호수 Puppet Ballet - Swan lake
(주)알앤디웍스 R&D WORKS
- 49 **연극** 금강산려관 The Hotel Kumgang
극단 목수 MOKSU
- 50 **무용** 사자(死者)의 서(書)II Event Horizon
The Book of the Dead II Event Horizon
황재섭무용단 Hwang Jaeseop Dance Company
- 51 **무용** 2013 달굿 2013 DAL GOOD
윤미라무용단 MIRA Dance Company

Program Schedule

아대 아크로예술극장 대극장
아소 아크로예술극장 소극장
대대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대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대3 대학로예술극장 3관

SUN 일	MON 월	TUE 화	WED 수	THU 목	FRI 금	SAT 토
아대 사단법인 한국현대무용진흥회 2013 SCF 서울 국제 안무 페스티벌 대대 (재)산문화재단 음악극 에릭사티 대소 극단 성북동비둘기 세일즈맨의 죽음 대3 극단 목수 전기수	아소 박종원 Un:truth 38p 대3 극단 목수 전기수	아소 박종원 Un:truth 38p 대3 극단 목수 전기수	아대 50대 연기자 그룹 연극 레미제라블 40p 아소 박종원 Un:truth 38p 대3 극단 목수 전기수	아대 50대 연기자 그룹 연극 레미제라블 40p 대소 댄스씨어터 까두 모티프 까두, 2013 42p 대3 극단 목수 전기수	아대 50대 연기자 그룹 연극 레미제라블 40p 대대 (주)이다엔터테인먼트 환상동화 36p 대소 댄스씨어터 까두 모티프 까두, 2013 42p 대3 극단 목수 전기수	아대 50대 연기자 그룹 연극 레미제라블 40p 아소 (사)한국현대무용협회 2013 신인데뷔전 39p 대대 (주)이다엔터테인먼트 환상동화 36p 대소 댄스씨어터 까두 모티프 까두, 2013 42p 대3 극단 목수 전기수
아대 50대 연기자 그룹 연극 레미제라블 40p 아소 (사)한국현대무용협회 2013 신인데뷔전 39p 대대 (주)이다엔터테인먼트 환상동화 36p 대3 극단 목수 전기수	대대 (주)이다엔터테인먼트 환상동화 36p	아대 (사)한국무용협회 2013 대한민국 무용대상 시상식 문의. 02-744-8068 대대 (주)이다엔터테인먼트 환상동화 36p	대대 (주)이다엔터테인먼트 환상동화 36p 대3 극단 해반드르 그 남자의 프리포즈 41p	아소 극단 청국장 마흔 43p 대대 (주)이다엔터테인먼트 환상동화 36p 대3 극단 해반드르 그 남자의 프리포즈 41p	아대 2013 창작산실 우수작품전 크리스마스 캐롤 스크루지 45p 아소 극단 청국장 마흔 43p 대대 (주)이다엔터테인먼트 환상동화 36p 대3 극단 해반드르 그 남자의 프리포즈 41p	아대 2013 창작산실 우수작품전 크리스마스 캐롤 스크루지 45p 아소 극단 청국장 마흔 43p 대대 (주)이다엔터테인먼트 환상동화 36p 대소 김지안 노블 발레단 보드레와 함께하는 김지안 발레단의 '크리스마스 선물' 대3 극단 해반드르 그 남자의 프리포즈 41p
아소 극단 청국장 마흔 43p 대대 (주)이다엔터테인먼트 환상동화 36p 대3 극단 해반드르 그 남자의 프리포즈 41p	아대 2013 창작산실 우수작품전 맥베드(스코틀랜드의 꽃) 45p 아소 극단 청국장 마흔 43p 대대 2013 창작산실 우수작품전 행,간 44p 대3 극단 해반드르 그 남자의 프리포즈 41p	아대 2013 창작산실 우수작품전 맥베드(스코틀랜드의 꽃) 45p 아소 극단 청국장 마흔 43p 대대 2013 창작산실 우수작품전 행,간 44p 대3 극단 해반드르 그 남자의 프리포즈 41p	아대 2013 창작산실 우수작품전 맥베드(스코틀랜드의 꽃) 45p 아소 극단 청국장 마흔 43p 대3 극단 해반드르 그 남자의 프리포즈 41p	아소 극단 청국장 마흔 43p 대대 2013 창작산실 우수작품전 Fake Diamond 44p 대소 이희문컴퍼니 이희문 오더메이드 레퍼토리 '황' 46p 대3 극단 해반드르 그 남자의 프리포즈 41p	아소 극단 청국장 마흔 43p 대소 이희문컴퍼니 이희문 오더메이드 레퍼토리 '황' 46p 대3 극단 해반드르 그 남자의 프리포즈 41p	아대 2013 창작산실 우수작품전 파랑새 45p 아소 극단 청국장 마흔 43p 대대 2013 창작산실 우수작품전 I'm so tired 44p 대3 극단 해반드르 그 남자의 프리포즈 41p
아대 2013 창작산실 우수작품전 파랑새 45p 아소 극단 청국장 마흔 43p 대소 이대일 소리에 이르다 2013 47p 대3 극단 해반드르 그 남자의 프리포즈 41p	아대 (사)한국연극협회 제6회 대한민국 연극대상 문의. 02-3673-12967	아소 극단 청국장 마흔 43p 대대 (주)알앤디웍스 인형발레 NO.1 백조의 호수 48p 대소 극단 목수 금강산려관 49p 대3 극단 해반드르 그 남자의 프리포즈 41p	아소 극단 청국장 마흔 43p 대대 (주)알앤디웍스 인형발레 NO.1 백조의 호수 48p 대소 극단 목수 금강산려관 49p 대3 극단 해반드르 그 남자의 프리포즈 41p	아대 2013 창작산실 우수작품전 무상 45p 아소 극단 청국장 마흔 43p 대대 (주)알앤디웍스 인형발레 NO.1 백조의 호수 48p 대소 극단 목수 금강산려관 49p 대3 극단 해반드르 그 남자의 프리포즈 41p	아대 2013 창작산실 우수작품전 무상 45p 아소 극단 청국장 마흔 43p 대소 극단 목수 금강산려관 49p 대3 극단 해반드르 그 남자의 프리포즈 41p	아소 극단 청국장 마흔 43p 대대 황재섭무용단 사자(死者)의 서(書)II Event Horizon 50p 대소 극단 목수 금강산려관 49p 대3 극단 해반드르 그 남자의 프리포즈 41p
아소 극단 청국장 마흔 43p 대대 황재섭무용단 사자(死者)의 서(書)II Event Horizon 50p 대소 극단 목수 금강산려관 49p 대3 극단 해반드르 그 남자의 프리포즈 41p	아대 윤미라 무용단 2013 달굿 51p	대3 극단 해반드르 그 남자의 프리포즈 41p				아대 2013 창작산실 우수작품전 무상 45p 아소 극단 청국장 마흔 43p 대소 극단 목수 금강산려관 49p 대3 극단 해반드르 그 남자의 프리포즈 41p

12

December

보드레와 함께하는 김지안 발레단의 '크리스마스 선물'

안 무 김지안
일 시 12월 14일(토) 3시, 7시
관람료 20,000원

주최·주관 김지안 노블 발레단
후 원 사단법인 코리언발레씨어터
문 의 02-3668-0007

2013 제13회

서울국제공연예술제

SPAF 25일간의 기록



9월 11일 6pm. 본격적인 축제 시작에 앞서 SPAF를 이끌어 갈 주역인 상금한 자원봉사단 '스피플'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화이팅하는 모습,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 됩니다.



9월 29일 8am. 대학로에 나타난 거대한 트럭의 정체는? 바로 SPAF개막작 <빅토르 혹은 권좌의 아이들> 화물을 실은 차량입니다. 이 트럭이 무려 3대나 대학로에 왔습니다. 셋업 차량부터 남다른 스케일을 뽐내는 이 작품! 개막 전부터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았답니다.



9월 30일 9am. 저 트럭 안의 소품들이 궁금하여, 셋업 준비중인 무대를 살짝 다녀왔습니다. 보다 멋진 무대를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0월 1일 10am. 관객여러분을 맨 처음 맞이해야 할 SPAF의 얼굴, 스피플이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듣고 있군요!



9월 30일 4pm.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는 빌더스 어쏘시에이션 스태프들이 <손택: 다시 태어나다>를 셋업중입니다. 뉴욕 타임즈가 극찬한 작품이라고 하네요.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 개막식을 마친 후 개막작 공연이 시작 되었습니다. 열정적이고 시니컬한 흡인력 있는 연기력과 무대 연출이 돋보였던 무대였습니다. 작품 속에서 파티를 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사진 속 생동감 넘치는 얼굴들이 실제 공연을 보는 것 같습니다.



10월 4일 10pm. 공연이 끝난 후에는, SPAF에 참여하는 해외아티스트와 국내아티스트가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빅토르 혹은 권좌의 아이들> 엠마뉴엘 드마르씨 모타연출가와 <숙영낭자전을 읽다>를 연출한 권호성연출가님이 대화를 나누고 계시네요.

10월 2일 7pm. 2013SPAF 개막식. 한국공연예술센터 박계배 이사장님과 임수연 연극PD님, 오선명 무용PD님의 개막선언과 동시에 2013SPAF 25일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개막을 선언합니다!"



여기에 <빅토르 혹은 권좌의 아이들>팀의 배우들도 보이네요. 대학로예술극장 1층 씨어터킴 벽에 간단한 소감과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귀여운 그림도 있네요.



10월 10일 7pm. 싸아아. 무대 위에 비가...
기후난민에 대한 이슈를 다룬 댄스 다큐멘터리 <스푸마토>
공연 리허설 중!
완벽한 수연무대를 위해 밤 늦게까지 준비, 또 준비합니다.



10월 13일 9pm. <스푸마토>팀과 SPAF팀 파티 후에
다같이 한컷.



10월 15일 9pm. 자유로운 창작의식과 실험적인 도전의
무대! 제 7회 서울댄스컬렉션의 시상식 현장입니다. 결과발
표를 하는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9명의 본선 진출자 중에
이상훈,진병철,김진우 안무가가 수상했습니다.



10월 12일 8pm. <스푸마토> 첫 공연 직후,
다음날 공연을 위해 SPAF팀원들과 스파플들이 출동하여
옷소매를 걷고 물을 치우고 있습니다. 모두 수작업이었다는 사실!



10월 5,13,19,26일 7pm. "SPAF 에피타이저&디저트"는
공연 관람 전 작품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관객분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김연수 소설가의
<손탁:다시태어나다>의 에피타이저&디저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10월 14일 8pm. SPAF에는 해외 축제 관계자
및 프로모터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그중 김현탁 연출, 극단 성북동비둘기의 <메디아 온 미디어>
공연을 본 여러 프로모터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축제의 막바지에 싱가포르 아트 페스티벌로부터 공식초청 소식을
전해주었네요! <메디아 온 미디어>는 SPAF를 넘어 내년 '루마니아
시비우 국제 연극제'와 '싱가폴 아트 페스티벌'에서 공연됩니다!



10월 18일 9pm. <로튼애플> 예술가와의 대화는
관객분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추어 편안히 방석에 앉아
얘기를 나누시는 차진엽 안무가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0월 25일 10am. 울티마베즈 워크숍
쿵쿵쿵! 거친 호흡과 발구르는 소리로 스튜디오 하이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울티마베즈의 원 멤버 에두아르도 토레자가 <왓더바디 더즈낫 리멤버>의
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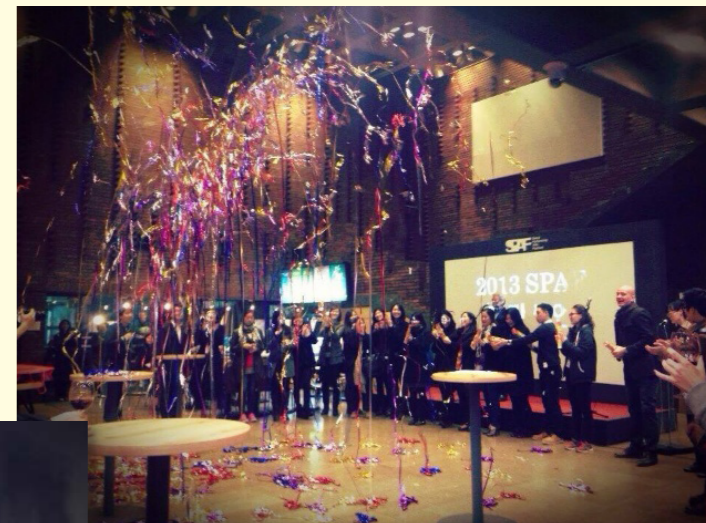
10월 26일 7pm.
2013SPAF 폐막작
울티마베즈 <왓더바디 더즈낫 리멤버>
입니다. 벽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심장의 떨림마저 느끼게 만드는
폭발적인 에너지로 많은 관객분들의
기립박수를 끌어냈습니다.



10월 23일 11am. 프랑스로 돌아가지 못한 한 녀석!
신비롭고 환상적인 작품으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
<핀의 오후>&<소용돌이>. 피아메나르의 메시지를 품은
한 녀석이 서울에 남았습니다.



10월 23일 9pm. <크라임> 예술가와의 대화에
서 연기와 외모를 다 갖추면서도 치명적인 매력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던 딸 역의 야시미나 플라크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10월 26일 9pm. 2013SPAF 폐막을 선언합니다!
25일간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다함께 폭죽을 터뜨려 2013SPAF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내년에 만나요!

2013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긍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공연예술 발전에 동력원이 되길

연극 총평 - 현실을 재현하는
동시대 연극의 다양한 형식실험

이은경 연극평론가

2013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이하 SPAF)는 “초현실 vs 리얼리티”라는 주제 하에 초현실주의적 경향의 해외작품과 작가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내작품을 다양하게 조명하였다. 이번 SPAF는 관객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국초청작 뿐만 아니라 국내초청작까지 매진사세가 이어졌다. 침체한 우리연극에 대한 불만이 해외공연에 대한 기대로 환치된 것이다. 또한 2010년 운영의 주체가 바뀌면서 형성된 우려감¹⁾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올해 SPAF에는 해외초청작 9작품, 국내초청작 10작품 총 19편의 연극과 무용작품이 공연되었다.

1) 2010년 SPAF사무국이 (재)한국공연예술센터(이하 한팩) 산하조직으로 통합되면서 축제는 한팩의 사업 중 하나로 수용되었다. 2004년 전문예술감독제 도입 이후 1명의 예술감독이 축제의 프로그래밍을 책임져왔던 것과 달리 연극(서재형)과 무용(안애순)으로 장르를 구분하여 2명의 공동 예술감독을 선임하였다. 상임이었던 앞서와 달리 비상임 직책으로 지위도 약화되었다. 탈장르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연극과 무용을 분리하는 것은 예술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 주체가 된 한팩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축제의 변화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다. 더군다나 예산이 예년의 절반으로 삭감되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연예술축제로서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까지 대두되었다. 2011년 SPAF에 대한 평가는 우려대로 축제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축제를 대표할 만한 작품이 부재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2012년은 전통적인 장르의 구분에서 벗어나 통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즈음 공연예술의 흐름을 반영하여 융합 양식(multi-disciplinary)을 콘셉트로 내세웠다. 폴란드 노비그랑의 《아폴로니아》와 오플레극장의 《오디세이》가 주목받으며 SPAF에 대한 여전한 우려와 새로운 기대가 공존했다.



해외초청작: 스펙터클이 서사를 압도하다

개막작 테아트르 드 라 빌(Theâtre de la ville)의 〈빅토르 혹은 권좌의 아이들〉은 프랑스 초현실주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로제 비트락의 대표작을 엠마뉴엘 드마르씨-모타가 연출한 작품이다. 로제 비트락 외에 앙토냉 아르토, 장 아누이 등 현대연극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들과 얽혀있는 이 작품에는 기존 관습에 저항하며 연극의 혁신을 모색했던 20세기 초 아방가르드연극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9살 생일을 맞은 빅토르는 180센티미터로 자라 외형만으로는 이미 어른이다. 그는 가보인 화병을 의도적으로 깨뜨리고 하녀에게 누명을 씌우겠다는 협박으로 성적 요구를 할 만큼 영악하고 조숙하다. 친구 에스테르의 어머니와 자신의 아버지가 불륜임을 알게 되자 그는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어른들 앞에서 잔인한 독설로 사실을 폭로한다. 부르주와 가족의 허영과 위선이 드러나는 과정에 절대적 가치로 믿고 있던 종교와 국가까지도 조롱된다.

무대는 삼면의 벽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심에는 이층 구조의 구조물, 천장에는 바닥을 향해 거꾸로 매달린 세 그루의 거대한 나무들, 객석 가까이에는 커다란 물웅덩이가 있다. 공연이 진행되면 나무들은 점차 아래로 내려오고, 벽들은 공간을 넓혔다 좁혔다 이동하여 인물의 내면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빅토르와 에스테르는 물웅덩이에 온 몸을 담그며 어른들과 유리된 심리적 간극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공연은 전체적으로 그로테스크하다. 조명의 변화에 따라 무대에 다양한 크기·형상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인물들은 유령처럼 창백한 분장으로 과장되게 연기하다가 기괴한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면 양식적으로 움직인다. 이 작품은 비트락이 분노했던 당시의 부조리가 바로 현재의 삶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 인물들의 실존이 부재해 결국 음침한 무대에서 기괴한 인물들의 엽기적인 놀이를 보여준 스펙터클로만 남았다. 극단의 유명세가 좋은 작품을 담보하지는 않았다.



〈빅토르 혹은 권좌의 아이들〉

빌더스 어쏘시에이션(The Builders Association)의 <손택-다시 태어나다>(마리안 워즈 연출)는 수잔 손택의 14살부터 30살까지의 일기·메모를 묶은 동명의 저서를 아들이인 데이비드 리프가 각색한 작품이다. 원작에는 나이에 비해 놀라운 학문적 깊이, 성적 정체성에 관한 혼란스런 내면 등 신화를 벗겨낸 그녀의 진솔함이 그대로 담겨있다.

공연에서는 영상과 실연에 의해 세 층위의 극적 공간이 형성된다. 하나는 책상이 놓인 무대로 실제 배우에 의해 재현되는 30대까지 젊은 손택의 개인공간이다. 또 하나는 책상의 소품들을 라이브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그녀의 친필원고를 제작된 영상으로 보여주어 시간의 층위가 겹치는 가상의 영상공간이다. 그리고 사막에 투영된 영상을 통해 담배를 피우고, 책을 읽으며 젊은 날의 자신을 지켜보는 노년의 그녀가 공연 내내 존재한다. 이처럼 공연은 과거와 현재가 공시적으로 혼재하고, 영상과 실재가 겹친다. 공연이 시작되면 시공간의 층위를 병치시키는 영상테크놀로지의 수월성에 놀라게 된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이후의 공연은 동일한 형식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 왜 손택이란 매력적인 캐릭터를 테크놀로지를 강조하기 위한 도구로 소비했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인물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보여준 배우 모에 앙겔로스의 극적 에너지도 영상이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관객을 감동시키지 못했다. 손택은 사라지고, 영상테크놀로지만 남은 허망한 공연이었다.

도가 스즈키 컴퍼니(Suzuki Company of Toga)의 <리어왕>(스즈키 다다시 연출)은 압도적인 형식미와 자기 스타일을 작품 속에 꼭 채운 연출가의 뛰어난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준 작품이었다. 하지만 리어는 사라지고, 이미 익숙해진 '스즈키 메소드'를 모노톤으로 반복하는 양식적인 공연을 두 시간이나 견디는 것이 쉽지 않았다. 자세한 논의는 『한팩뷰』 이번 호에 실린 필자의 공연리뷰로 대신하고자 한다.



<크라이>

테아트르 폴스키 비엘스코-비아와 (Teatr Polski Bielsko-Biała)의 <크라이>(이벨리나 마르치니아 연출)은 폴란드의 대표적인 작가 고프로비치의 단편소설 <Premeditated Crime>과 <Cosmos>를 해체해 재창작한 작품이다. 이번 축제의 해외초청작 중 유일한 소극장 공연이며, 개인적으로 해외초청작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작품이었다.

극장에 들어서면 이미 어머니·딸·아들이 무대에 나와서 관객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다. 이들의 태도나 표정에서 불안과 초조가 느껴진다. 무대는 3면으로 분할되어 중심에는 사각형의 벽과 단이 놓여있고, 좌측에는 커다란 칠판이 있으며, 우측에는 사진이 붙은 벽과 황금색의 해골들이 쌓여있는 바닥이 보인다. 조명은 중앙에 집중되어

좌우측 무대는 상대적으로 어둡고 음침하다. 중심사건은 갑작스레 등장한 형사가 아버지(혹은 남편)를 죽인 범인이 누구인가를 가족들에게 심문하는 것이다. 하지만 심문과정에서 가족이 밝히는 사건의 전말과 방송에서 보도되는 유사한 사건의 내용이 혼란스럽게 교차하면서 사건 자체의 논리가 무너진다. 어둠 속에 몸은 은폐시킨 채 살해당한 희생자들의 다양한 모습을 칠판에 그리는 아들, 조속한 육체로 계속 형사를 유혹하는 어린 딸, 과장된 머리와 화장을 하고 무엇인가를 은폐하는 어머니,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흰색의 의상으로 느닷없이 등장하여 선정적으로 행동하는 고모, 의도가 무엇인지조차 모호한 형사 등 등장인물 모두가 비현실적이다. 이 작품의 핵심은 범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무의식적인 내면을 드러내어 인간관계의 부조리함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작품에서 행동의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벽지와 동일한 문양의 옷을 입은 딸은 벽을 뚫고 무대 뒤쪽으로 나가고, 어머니는 벽에서 다양한 음식을 꺼낸다. 이들은 대사 없이 중심 무대 밖에서 동물처럼 움직이고, 형사와 딸은 해골무덤에서 싸움인지 성적 행위인지조차 모호한 육체적 실랑이를 벌인다. 기존의 관습을 넘어서는 연극적 표현과 서사의 전개방식이 호기심과 함께 긴장감을 조성한다. 적당하게 타협하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관객을 끌고 가는 젊은 연출의 과감함, 배우들의 놀라운 극적 에너지가 무대를 꽉 채운 흥미로운 공연이었다.

아오모리현립미술관의 <축인>(하세가와고지 연출)은 2011년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 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다룬 한·중·일 공동 프로젝트이다. 결혼식을 의미하는 일본어 '축인'에 가운데 '슬래시(/)'를 두어 상처와 국경선까지도 상징하는 제목이 되었다. 절대적 비극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한계를 확인한 예술가들이 국경을 초월한 동지식으로 모여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해원의식을 수행했다. 3국의 배우, 음악가, 무용가, 미디어 아티스트 등 다양한 예술가들의 협업으로 장르를 초월하고, 현대와 전통을 아우르는 공연이 되었다.

동일본 바닷가 어느 도시의 호텔로비, 다음 날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인 한국인 유학생과 일본 남자, 그 가족·친구들의 어색한 만남으로 공연은 시작된다. 주변의 연주자들이 동참하면서 금세 춤과 음악이 어우러져 분위기가 흥겹게 된다. 하지만 갑자기 닥친 대지진과 쓰나미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어둡고 고요만이 무대에 존재한다. 빛이 드리우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의 대화가 다시 시작된다. 트라우마 서사를 통해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과거를 재구성하고, 현재적 관점이 개입된 새로운 과거와 직면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하려는 것이다. 이 공연의 핵심은 음악이었다. 전통악기와 현대음악의 어울림이 뛰어나고, 슬픔과 치유의 분위기를 잘 표현한 노래도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기획의도 이상의 작품의미를 찾기는 어려웠다.

국내초청작: 작가주의 힘을 느끼다

국내초청작들은 공연시간이 비교적 짧은 소극장 작품이고, 작가주의적 태도를 견지해서 기존의 연극 관습에서 자유로운 시도를 담고 있으며, 여러 번의 재공연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다듬어왔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극단 모시는사람들의 <속영남자전을 읽다>(권호성 연출)는 고소설연행양식을 차용하여 옛 이야기를 현재로 소환한 작품이다. 제목처럼 <속영남자전>이 중심이 되지만 <빈음녀> <춘향전> <조침문> <긴아리랑> 등 우리의 고전문학이 현실의 삶과 조응하며 적절하게 삽입된다. 하지만 <속영남자전>보다 '읽다'에 방점이 찍힌다. 소설은 극중극으로 재현되고, 강독하는 항금아씨의 개인사와 고단한 삶을 견디는 아낙들의 해학 넘치는 수다가 창·대화로 표현된다. 이러한 액자식 구성을 통해 현실과 환상을 쉽게 넘나든다. 소설 속 선군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림자, 노골적인 성담론이 오가는 양반가 규방의 은밀한 분위기도 관객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규방의 벽을 열고 등장한 선군이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전통춤을 추는 장면연출은 충분히 극적이었다. 전통 낭독기법을 현대로 소환한 형식실험, 앙상블을 이룬 배우들의 연기도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소설의 절정에 몸부림치는 아낙들의 감정표현이나 선군의 춤 등을 부답스러울 정도로 비중 있게 다루어 극적 리듬감이 깨진 점은 아쉬웠다.

무브먼트당당의 <인생>(김민정 연출)은 치열한 삶을 살았지만 이데올로기에 희생된 채 역사에서 망각된 공산주의 혁명가 박현영의 삶을 조명한 작품이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조명과 영상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박현영과 그의 아내 주세죽, 동지 김단야를 현재로 소환하여 인간의 신념을 무위로 돌리는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고발한다. 공연은 굴곡진 근현대사의 희생양으로 사라져간 혁명가들의 망령이 자욱한 스모그 속에서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부르며 등장하는 인상적인 장면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정의와 평등에 관한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던 박현영의 삶이 증언을 통해 설명된다. 역사적 사실을 환기시키는 다큐멘터리 요소를 적극 수용하여 정치적·사회적 맥락을 포착하면서도 공간과 움직임의 미학적 결합을 추구한 작품이었다. 극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담아낸 세련된 조명은 의미의 층위를 훨씬 풍부하게 했다. 하지만 에피소드의 나열에 집중하여 설명적이었고, 주제를 직설적으로 전경화해서 사유의 여백을 남기지 않은 점은 아쉬웠다.

극단 성북동비둘기의 <미디어 온 미디어>(김현탁 연출)는 <미디어>를 해체하여 재창작한 작품으로 2012년 『한국연극, 베스트7』에 선정되어 이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그리스의 비극적인 여주인공 미디어를 다양한 현대의 미디어 속으로 소환하였기에 그녀의 서사는 사라지고 미디어의 매체적 특성이 시각적으로 재현되는 포스트드라마 연극이다. 그렇기에 이 작품에서 미디어는 소재일 뿐이다. 게임, 성인방송, 시사토크, 고전적인 신파영화 등 대중적 미디어 속에 미디어의 서사가 어떻게 해체되어 배치되는가에 중점을 둔다. 파편화된 서사를 미디어 매체와 절묘하게 결합시키는 상상력이 놀랍다. 개인적으로 김현탁 연출은 텍스트에 억매이지 않는 과감함과 관습에서 벗어난 연극적 상상력의 조합으로 포스트드라마 시대에 최적화된 연출인 듯하다. 물론 작품 간 편차가 있지만 런닝머신 위에서 공연 내내 달리는 <세일즈맨의 죽음>, 사회적 삶과 내면적 삶을 구분하여 무대 위와 무대 아래의 연기 메소드를 대비시킨 <성북동갈매기>, 고전적 여성인 춘향을 노골적인 성적 상징으로 도발한 <열녀춘향> 등 원작에 대한 기대를 전복시키는 실험성이 뛰어나다.



<인생>

내년을 기대하며

SPAF는 국제성을 기본 자산으로 성장해 왔지만 LG아트센터 등 다목적 극장과 '국제'를 표방한 지역축제가 양산되면서 국제성의 희소가치가 사라졌다. 그렇기에 SPAF는 동시대 최고 작품을 만나는 예술무대이고, 국내공연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예전에도 SPAF 초청작들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 해를 대표할 만큼 인상적인 작품은 있었다. <정화된 자들>(브로츠와프 현대극단, 2006), <세일즈맨의 죽음>(베를린 샤우뷔네 극장, 2007), <폭풍>(푸쉬킨 드라마씨어터, 2010) 등 감동적인 작품으로 SPAF를 기억했었다. 하지만 운영주체의 변화가 있는 후, 이런 작품을 만나지 못했다. 작품으로 기억할 수 있는 SPAF가 되어야 한다. 축소된 예산이 문제라면 축제의 규모를 줄여서라도 예술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국제를 지향하는 축제나 아트마켓이 빈번하게 열리지만 우리 작품의 해외진출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SPAF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는 서울아트마켓과 연계하여 국내초청작을 해외 프로모터·프리젠티가 관람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해외 축제감독·프로듀서 등 주요 관계자와의 교류를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 결과 올해 <미디어 온 미디어>가 2014년 '루마니아 시비우 국제 연극제'와 '싱가폴 아트 페스티벌'에 초청받는 성과를 올렸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단순히 동시대 외국작품을 소개하는 소극적 역할에서 나아가 우리 연극 발전에 중요한 동력원이 될 것이다.

무용 총평 - 우려를 긍정적인 성과로 이끈 춤 무대

심정민 무용평론가, 비평사학자

1980년대 서유럽을 기점으로 생성된 컨템포러리댄스(contemporary dance)는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갔다. 작금의 예술 춤에 있어 대세적인 경향인 컨템포러리댄스는 최근의 춤이나 동시대의 춤쯤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클래식발레나 모던댄스와는 차별화된 현재 진행 중인 창작춤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컨템포러리댄스는 기존의 무용미학에 반하는 개혁을 보여준다. 다양한 움직임 영역을 넘나들고, 무용과 다른 분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때론 내러티브한 전개를 와해시키는가 하면, 이런 변화무상함에 대해 관객의 유연한 시각을 요구한다. 최근의 춤은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력과 상상력을 분출하는 현대의 예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무용계에서도 2000년대 들어 최근의 춤 동향이 빠르게 확산되어갔다. 컨템포러리댄스의 예술적 특질 중에서 우리 무용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경향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움직임 영역 넘나들기'와 '무용과 타 분야와의 조우'를 들 수 있다. 최근에는 후자에 해당하는 무용과 타 분야 간의 조우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추세다. 그럼으로써 장르파괴, 복합매체, 인터랙티브(상호작용) 등과 같은 명칭이 더 이상 생소하지 않을 정도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의 춤 동향의 확산에 기여한 각종 축제들 중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는 단연 선봉에 서 있다.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출범한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무용과 연극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들 간의 융합이나 통섭을 주도적으로 펼치는 대표적인 페스티벌로서 가을시즌을

빛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무용과 타 분야 간의 조우라는 최근의 경향을 가장 잘 대변하는 공연예술 축제로서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10년 한국공연예술센터로 운영체제가 이전되는 등의 변화를 겪었으면서도 큰 지각 변동 없이 영향력을 유지해가고 있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 2013 무용부문에서는 해외초청공연 4작품과 국내공연 6작품이 있었다.

버릴 것 없던 해외초청공연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해외초청공연에서는 최근의 춤 동향을 망라하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올 만한 작품들을 소개해왔다. 춤의 구성적인 미를 탐닉하는 작품들을 넘어서 관념적인 사유를 담아내거나 다른 분야와의 교류를 꾀하는 작품들을 다수 선보였던 것이다. 2010년 한국공연예술센터로 운영체제가 이전된 후로는 무용부문을 전담하는 운영진이 확립되어 춤적인 연출을 강화한 작품을 보강하는 기색을 띠고 있다.

빔 반데키부스의 <왓더바디>(10월25일)는 '육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What the Body Does Not Remember)'이란 원제를 줄여놓은 것이다. <왓더바디>의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인상을 이끄는 것은 아무래도 움직임이다. 각자 다른 개성을 지닌 무용수들은 석고벽들을 서로 던지고 받는 행위를 연속하는데 있어 점차 조직력을 발휘하여 속도나 난이도를 높여간다. 때론 머리 위로 떨어지는 석고벽들을 이슬이슬한 타이밍으로 피함으로써 관객의 심장을 쫓기듯하게 만들기도 한다. 무대를 중형무진하면서 던지고 받고 피하는 움직임에는 엄청난 훈련의 결과물인 면밀한 호흡이 존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의 수건을 채가기, 상대방을 압제하면서 조정하기, 경쟁적인 긴장감을 지닌 자리 잡기,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포즈 취하기, 성큼 밟아대고 이를 피하기 등의 행위를 이어간다.

삭막하고 기이한 공간 속에 갇힌 인간 군상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 것거리들은 현대사회의 부조리한 관계성에 대해



<왓더바디 더즈낫 리멤버>



<스푸마토>

재고하도록 이끈다. 이질적인 상황들을 묘사하는 갖가지 행위는 모두 발전적으로 진화하여 춤적인 모양새를 띠게 된다. 무용수들은 울티마 베즈 특유의 부서질 것 같이 격렬하게 온몸을 내던지고 내달리곤 하는데 그 강도 높음에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빔 반데키부스는 '기존의 것에 저항하면서 완전히 뒤집는 것이야말로 창조적 정신'이라는 자신의 말을 실현하고 있다.

논노바의 <소용돌이>(10월20일)와 <핀의 오후>(10월21일)는 예술가의 상상력이 무대 위에서 얼마나 섬세하게 실체화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버리는 비닐봉투는 마치 작은 요정들처럼 이리저리 부유한다. 비닐봉투들이 생명력을 가진 듯 보이는 이유는 둥근 무대를 둘러싼 20여 개의 선풍기와 함께 천정에 설치된 거대한 팬을 섬세하게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핀의 오후>가 다양한 색깔의 비닐봉투의 유희를 보여준 어린이버전이라면, 여기에서 더 발전하여 외계생물이나 심해생물을 닮은 그로테스크한 형상이 등장하는 <소용돌이>는 어른버전쯤으로 설명될 수 있다.

라시드 우람단의 <스푸마토(Sfumato)>(10월13일)란 작품의 제목은 르네상스 회화기법으로 '윤곽없이', '안개처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의 생명력은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재고해야할 인간의 존엄성에도 연결되어 있다. 우람단은 이를 예리하게 고발하기보다는 회젯빛 무대에 뿌리는 안개와 강우로서 일련의 분위기를 조성할 뿐이다. 물을 맞고 튀기고 또 물 위를 내달리고 미끄러지는 등의 움직임은 기이한 삭막함을 배가하는데 마치 주제에 대한 우람단의 정조(情調)를 실체화한 듯하다.

흔흔한여풍(女風)이 불던 국내공연

국내공연은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 계파와 경향을 초월하여 비교적 공정하게 무용가들을 아울러왔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어느 국제 페스티벌이든 간에 해외초청공연과 국내공연의 차이는 존재한다. 해외초청공연은 전 세계 무용계를 대상으로 하여 예술적 가치가 높으면서도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 무용가와 무용작품을 골라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국제 페스티벌의 색깔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한편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국내공연의 경우, 발전적인 미래를 향해가는 우리나라 무용계의 현 모습을 투영한다는 데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관건은 얼마만큼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채 실력있는 무용가들을 무대에 올리느냐에 있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이에 관련한 긍정적인 평판을 유지해왔다. 국내공연의 큰 흐름에서 올해는 특히 여풍이 두드러졌는데, 선정된 6명의 안무가 중 4명이 여성이었다는 수치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창작 여건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우리 무용계에서 젊은 무용가가 독립적으로 활동해가기란 그리 녹녹치 않다. 어느 정도 안정성을 부여하는 울타리 없이 온갖 바람을 맞아가며 창작 활동을 펼쳐 나가야하기 때문이다. 더욱 쓸쓸한 처지에 놓인 이라면 아무래도 여성창작자들이다. 무용인구의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성창작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현실은 그녀들을 힘 빠지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여성무용가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허성임은 장수미와 함께 <필리아>(10월19일)를 선보였다. 그리스어로 친구간의 우정이나 사랑을 뜻하는 'Philia'라는 제목처럼 사춘기 시절의 열망과 불안과 순수함을 그려낸다. 춤에다가 연극적인 연출과 일상적인 행태를 함께 아우르는 안무는 최근 빈번하게 등장하는 스타일의 하나다. 별다른 독창성이나 획기적인 실험을 찾지 힘든 작품을 흥미롭게 만든 이는 바로 허성임이다. 빈 말이라도 예쁘다고는 할 수 없는 외모를, 무대에서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느껴지게 하는 마력이 그녀에게는 있다. 막춤으로 철저히 매가질 때면 천진난만한 악동 같고, 물불 안 가리고 내달릴 때면 자유로운 야생마 같다가도, 다음 순간 성적인 매력을 물씬 풍기는 신의 피조물로 변신하기도 한다. 스스로 도취된 예술가만이 관객을 도취시킬 수 있는 법이다. 허성임의 도취의 원동력은 예술 앞에서 흔들림 없는 신념과 열정 그리고 자신감이다. 차진엽은 <로튼 애플(썩은 사과)>(10월19일)을 통해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다. 객석을 모두 밀어버린 채 간이 칸막이로 여러 개의 방을 만들었는데, 각 방에는 탁자와 의자, 화장대, 침대 등의 소품이 들어서 있다. 주로 여성으로



<필리아>

이루어진 무용수들은 춤이라기 보다는 행위에 가까운 움직임에 펼쳐면서 방과 방을 옮겨 다닌다. 동시에 관객으로 하여금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자유로운 위치에서 관람하도록 유도한다. 최근 해외 춤 동향 중에서, 작품의 구성적인 실험에서 벗어나 공간 자체를 실험하는 경우에 동참한 것이다. 이윽고 모든 칸막이를 거둔 상태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무용수들은 기계인형처럼 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기이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통적으로 탐욕을 상징 하는 '이브의 사과'에 집착하는 그녀들은 현대인의 집요하면서도 허망한 탐욕의 단면을 고발한다. 이해경은 자신의 대표작 <꼭두질>(10월9일)을 리바이벌하였다. 판소리 고전인 '심청전'을 재구성한 <꼭두질>은 심봉사가 눈뜨는 대목에서의 갈등구조를 소재로 삼고 있다. 심청을 실제 무용수가 아닌 소리로만 등장시키는 가운데, 뽕떡어머를 건장한 근육질의 남자로 그리고 심봉사를 상대적으로 여리한 미청년으로 배치하여, 고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하는 맛을 내고 있다. 즉 전통이 갖는 고정관념에서 급진적으로 탈피한 것이다. 춤사위는 한국춤의 전형에서 벗어나 현대춤이나 심지어 힙합춤까지 끌어들이 표현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다만, 원래 버전보다 복잡 다량해진 춤사위는 단순하지만 함축된 기존 춤사위에 대한 감흥을 반감시켰다. 이러한 약점은 천사와 악마로서 갈등구조를 표현하는 춤사위에서 두드러졌다.

<존재의 전이>(10월9일)에서는 여성으로서 또 예술가로서 젊은 날을 떠나보내고 있는 윤희름의 삶과 예술에 대한 깊은 사유가 두드러진다. 작품의 2/3 가량을 지배한 오설영은 윤희름 특유의 여성주의적인 내용과 흡입력 있는 기류를 여실히 실현하였다. 어둠이 깔린 배경에서 한줄기 가는 빛처럼 은은하게 부각된 그녀의 등골 선은 춤의 미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 여기에 음영을 깎아내는 조명, 시기적절하게 찢어주는 음향, 자연스러운 라인의 의상까지 어우러져 춤의 매력을 한층 돋운다. 말미에 등장한 김선미는 오설영의 20년 후 버전쯤으로 여겨지는데 주어진 시간이나 존재감에 있어서 뻔한 느낌이 맞지 않는 인상이다. 무엇보다 둘의 섞이지 않는 춤의 이질감이 가장 큰 문제다. 흔흔하면서도 거센 여풍 속에서 남성안무가 김보람과 신창호 역시 자신의 존재감을 새겼다.

김보람은 <인간의 리듬>(10월9일)에서 클래식과 팝 그리고 남미음악을 넘나들면서 인간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리듬을 춤적으로 진화시켜갔다. 가장 자유로운 영혼만이 가장 감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신창호는 <몸의 탐구>(10월15일)를 통해 춤에다가 영상과 음향 효과를 접목하여 흐르는 시간의 찰나적인 순간을 고찰한다. 단련된 신체의 갖가지 탐구적 활동들은 구성과 즉흥을 섞어놓음으로써 신창호의 발전적 노력을 반영하였다. 그밖에도, 신진무용가들을 등단시키는 '서울댄스컬렉션&커넥션'이나 공연작에 대한 이해를 돕는 '예술가와의 대화' 뿐 아니라 '국제공연예술전문가 심포지엄', '울타미 베즈의 신작오디션과 워크숍', '젊은 비평가상' 등과 같은 부대행사가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었다. 각 영역마다 실효성의 편차가 있으므로 이를 줄여가는 노력은 필요하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 2013의 무용부문은 애초에 우레에 비해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2010년 한국공연예술센터로 운영체제가 이전된 후에 예산의 1/3정도가 줄어든 영향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그 직격탄은 국내공연이 맞았는데, 6개의 작품에 책정된 총 예산이 매우 협소했던 것이다. 몇 차례는 그 동안 쌓아온 명성에 맞는 무용가를 불러들일 수 있었지만 그 '약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해외초청공연에 드는 예산을 더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올해의 경우 단 4작품만 소개된 데다가 한 팀은 2작품을 공연했으므로 3단체가 내한한 셈이다. 국제 축제에서 성황과 수준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해외초청공연임을 감안하면 여기서 더 모양새가 빠질 수도 없다. 특히 화제를 낳고 반향을 일으키는 빔 반데키부스 급의 무용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해외초청공연을 중심으로 매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성과도 있는바, 예산 확보를 위해 기업 후원이나 광고를 유치하는 등의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은 시급하다. 사진, ©Sang Hoon Ok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빅토르 혹은 권좌의 아이들>
 연출
 엠마누엘 드마르씨-모타
 단체
 테아트르 드 라 빌
 2013.10.2~10.4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빅토르 혹은 권좌의 아이들> 에너지를 희생시킨 가장(假裝)의 연극

이용복 연극평론가

2013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개막작으로서 프랑스의 유명 극단인 테아트르 드 라 빌이 제작한 <빅토르 혹은 권좌의 아이들>이 상연되었다. 연출은 극장의 대표인 엠마누엘 드마르씨-모타가 맡았으며 그는 현재 프랑스를 대표하는 젊은 연출가 중의 한 사람으로서 올해 파리 가을 축제의 총 감독을 맡고 있기도 하다.

1928년 로제 비트락이 쓰고 아르토에 의해 초연되었던 이 작품은 프랑스에서도 그리 자주 공연되는 편은 아니며 한국에서는 초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에서 아마추어 배우들에 의해 다루어진 적은 있으나 전문배우들에 의해 공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비트락의 작품에 대해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필자는 그의 대표작이 프랑스의 유명 극단에 의해 그리고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개막작으로 공연된 것에 대해 무척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였다. 당연히 설렘과 기대를 갖고 이 공연을 관람하게 되었다.

하지만 공연은 예상했던 바와는 좀 달랐다. 전체적으로 맥이 빠져 보였고 아르토가 추구하던 에너지가 부족해보였다. 배우들의 연기는 피상적이고 작위적으로 보였으며, 깊이가 결여되고 진정성이 부족해 보였다. 세련된 외모와 날씬한 몸매를 지닌 에밀리 역의 배우(Elodie Bouchez)는 남편이 없는 밤에 외롭게 재봉틀을 돌리는 시골 여인의 느낌보다는 파티를 즐기는 세련된 도회지의 여자로 보였고 그녀의 연기는 TV 드라마에 더 어울려 보였다. 빅토르의 아버지 샤를르 역을 맡은 배우(Serge Maggiani) 역시 비슷한 스타일의 연기를 보여주었다. 주인공 빅토르 역을 맡은 배우(Thomas Durand)는 날렵한 동작이 인상적이었으나 이 인물이 지닌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눈에 띄는 배우는 앙투안 역을 맡은 배우(Hugues Quester)로서 무대를 장악하는 그의 발성은 유일하게 연극적으로 보였다.

그런데 이처럼 피상적이고 인위적으로 보였던 배우들의 연기는 사실 의도적이었다. 연출은 빅토르와 에스테르의 가족이 모두 샤를르와 테레즈의 불륜관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이며, 이처럼 가장과 위선으로 가득 찬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사실적인 연기보다는 인위적이고 피상적인 연기 방식을 택했던 것이다. 빅토르의 생일 파티에서 빅토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가면을 쓴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연출은 사실주의 연기방식을 지양하고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것(artefact)을 통해서 진실에 도달하고자 한 것이다. 사실 이러한 상반된 방식은 초현실주의 정신과도 일치한다. 초현실주의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알프레드 자리가 상반된 것의 동질성(identité des contraires)을 주장한 것처럼 거짓을 통해서 진실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대 장치에서도 이러한 정신이 엿보이는데 예를 들면 낙엽이 떨어져 있는 정원의 연못이 거실의 연장선 위에 있어서 안과 밖이 서로 구분되지 않는 것과, 땅 속에 있어야 할 나무뿌리가 천장에서 내려오는 것 등이다.

그런데 거짓된 것을 통해 진실을 보여주고자 했던 연출의 의도는 한편으로는 성공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에너지와 광기를 희생시키는 것이어서 아쉬운 느낌을 주었다. 브레히트가 관객의 몰입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소외시키는 방식을 쓴 것처럼 이번 공연에서 드마르씨-모타는 무대 전환을 위해 암전을 사용하지 않고 관객이 보는 앞에서 인물들이 직접 무대 장치를 전환하게 하고(예를 들면 2막에서 3막으로 전환 시 하녀인 릴리가 직접 침대를 끌고 들어오는 것), 샤를르가 침대를 툭질하려고 할 때 하녀가 옆에서 툭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요컨대 인물에 동화되어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물과 거리를 두고 회화화시켜서 연기하는 방식을 택하였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기 방식이 주는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아르토가 추구했던 광기 어린 역동적인 무대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공연은 좀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다.

연기의 전반적인 스타일 외에 한국의 관객에게 이 작품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 언어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한국어로는 전달되기 어려운 언어유희들, 초현실주의가 추구했던 언어의 무의식적 자동성(automatisme verbal)에 의해 논리성을 벗어난 대사, 동일인물인 에밀리와 포멜 부인을 구분함으로써 정체성의 원칙(principe de l'identité)을 부인하는 이다 모르트마르의 부조리한 대사는 관객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으로 여겨지게 했을 것이다.

이 외에도 1928년 이 작품이 초연될 당시의 프랑스의 사회 분위기가 2천 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관객에게는 생소하다는 것이다. 프랑스를 배신하고 치욕적인 항복을 한 바젠에 대한 앙투안의 발작적인 광기는 프랑스 벨 에포크 시대(Belle Epoque, 보불전쟁 이후부터 1차대전 발발 전까지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던 시대)에 프랑스 사회에 팽배하던 독일에 대한 복수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빅토르가 앙투안의 광기를 일부러 부추길 뿐만 아니라, 장군을 말 타기 놀이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며, 부르주아 계층을 상징하는 세브르산 화병을 깨트리고 그것을 '다다의 알'이라고 부르는 것은 맹목적인 애국심, 군대의 권위주의, 부르주아 가정의 위선과 허세를 고발하고자 했던 다다·초현실주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역사적 배경을 잘 알지 못하는 한국 관객에게는 이 작품은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붉은 갈색 톤의 무대 3면의 세트 일부가 이동하면서 공간을 좁아지게도 하고 무대 전체로 확대하기도 하는 방식은 참신해 보였다. 원작에서는 포멜가의 아파트 부엌, 거실, 그리고 침실로 극의 공간이 바뀌고 있으나 이번 무대는 그러한 사실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하나의 세트로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리고 안과 밖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무대로 인해 배우들의 등퇴장 역시 오버랩되어 무대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무대 밖에 위치하는 듯한 이중의 느낌을 주었다. 그래서 퇴장하거나 다시 등장하는 인물이 마치 무대 중앙에서 벌어지는 일을 엿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요컨대 사실주의적 방식을 지양하고 가장을 통해 진실에 도달하고자 한 이번 공연은 관객의 취향에 따라 그 반응이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르토가 추구했던 다이내믹한 무대를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현실이 오히려 연극에 가깝다는 것을 이해하는 관객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공연이 되었을 것이다.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손택:다시 태어나다>
 연출 마리안 워즈
 단체 빌더스 어쏘시에이션
 2013.10.3~10.5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손택:다시 태어나다>

텍스트가 화려하게 돋보인 무대

김연수 소설가

“일기가 갖는 (사회적) 기능 하나는 바로 그렇게 남들에게 몰래 읽힌다는 것이다. (부모님 + 애인처럼) 일기 안에서만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쓸 수 있는 남들 말이다.”

1957년 12월 31일, 수전 손택은 ‘일기 쓰기에 관해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그녀의 출판된 일기를 연극으로 각색한 빌더스 어쏘시에이션의 <손택:다시 태어나다>를 보고 난 뒤, 그 구절은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건 지난 10월 4일, 저녁 8시 공연이 끝난 뒤 연출자인 마리안 워즈와 배우 모우 앵겔로스 등 제작진과 관객의 대화 도중에 나온 한 질문 때문이었다. 객석의 질문은, ‘이 연극을 통해서 연출자는 관객들이 무엇을 느끼기를 원했느냐?’는 것이었다.

이 질문은 아마도 앞에서 인용한 손택의 글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다른 사람이 혼자서만 읽을 생각으로 솔직하게 쓴 이 일기를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公演)’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관객들은 왜 그걸 80분 동안 지켜보아야만 하는가? 통역 과정에 이 낱어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제작진의 적절한 대답을 듣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 대답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의 일기를 공개적으로 출판하고, 또 이를 무대에 올리는 일의 당위성을 쉽게 납득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이 의문은 원작인 <Reborn: Journals & Notebooks 1947-1963>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사실 관객의 그 질문은 연출가가 아니라 자기 어머니의 일기를 출판한 데이비드 리프에게 던졌어야 했다. 그렇다면 질문은 좀더 단순했을 것이다. 예컨대 “당신은 왜 엄마의 은밀한 이야기들을 출판했나요?”처럼. 그러나 이런 질문이야 2005년 어머니 수전 손택이 죽고 난 뒤,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책으로까지 남긴 데이비드 리프가 어머니의 일기와 노트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을 질문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은 정신적으로 미숙한 지식인 수전 손택의 어린 시절과, 성적으로 혼란을 겪으며 자신의 결혼 생활을 지루함의 연속이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혼잣말을 공개적으로 출판하기로 결심했다. 그렇다면 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 대답이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데이비드 리프가 쓴 서문의 첫 문장을 읽는 게 좋겠다.

“나는 항상 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가장 명칭한 것이 바로 ‘아무개도 이런 식을 원했으리라’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렇다면 아들 데이비드 리프는 죽은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명칭한 것을 한 셈이다. 물론 인간이 명칭한 것을 하는 데에는 다 사연이 있는 법이고, 그 사연을 알면 그 명칭한 것도 사실은 가장 현명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한다. 이 경우가 바로 거기에 해당할 텐데, 데이비드 리프가 어머니의 일기를 출판하는 명칭한 것을 한 이유는 그녀의 모든 기록이 어떤 제한도 없이 캘리포니아대학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이 일기와 노트를 공개한다면, 그건 자기여야만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었다.

이로써 왜 데이비드 리프가 어머니의 은밀한 이야기를 출판한 이유는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객석의 질문은 해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왜 그 이야기들을 봐야만, 혹은 읽어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녀가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쓴 부모나 애인도 아니고, 또 몰래 훑쳐보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타인의 일기를 엿본다는 관음증을 채우거나 미국 지성계의 퍼스트레이디가 미숙한 시절에 남긴 글들을 통해 대리만족하려는 속셈 같은 걸 모두 걷어내면, 순수한 행위 하나만 남는다. 그건 바로 일기 쓰기다. 그렇다. 중요한 것은 일기의 내용이 아니라 일기를 쓴다는 것이다.

“일기를 단순하게 누군가의 개인적인 생각, 비밀이 담긴 그릇으로 이해하는 건 피상적인 생각이다. 일기가 마치 귀 먹고 명칭하고 글도 못 읽는 절친이라는 듯이, 일기 속에서 나는 직접 대면했을 때보다 더 자유로운 자기 표현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창조한다.”

공연에서 서두에서 인용한 구절을 읽는 어린 수전을 바라보며 나이 든 수전은 위와 같이 말한다. 이 두 구절은 수전 손택이 남긴 일기에 순서대로 들어 있는 구절이지만, 교묘하게도 공연에서는 어린 수전이 묻고 나이 든 수전이 대답하는 식으로 돼 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한 바, 이 ‘나는 나를 창조한다’가 바로 일기를 쓴다는 것의 의미다. 그러므로 객석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소녀가 글쓰기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을 미국 최고의 지성으로 창조해갔는가를 이해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다’가 되겠다.

공연에서는 두 가지 점이 눈에 띄었다. 하나는 어린 수전의 책상 옆에 환영처럼 떠 있는 나이 든 수전의 존재. 만약 일기가 누군가에게 읽힌다면, 가장 유력한 독자는 미래의 자신이리라. 이 미래의 자신은 수전이 쓴 것처럼 ‘내가 창조한 나’여야만 한다. 이 미래의 나는 지금 내가 쓰는 일기의, 가장 유력한 독자이면서 검열관이면서 비평가이기도 하다. 누가 강요한 일도 없는데 내가 일기를 쓰면서 오늘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까닭은 이 미래의 나 때문이다. 왼쪽에 일기를 쓰는 수전, 오른쪽에 환영과도 같은 수전을 배치한 무대 장치는 일기 쓰기의 이런 특징을 잘 시각화했다.

또 하나는 위에서 촬영해서 실시간으로 무대 뒤쪽 스크린에서 보여주는 책상 위의 풍경들. 그 책상 위에서 수전은 당연히 일기를 쓰거나 읽고, 또 발자크, 지드, 니체 등 위대한 작가들의 책이 올려놓기도 하고, 책상 위에 드러눕기도 했다. 실시간 실사라고 했지만, 스크린에서는 몇 가지 특수 효과가 들어가 책상을 매우 자유로운 공간으로 설정하는데 성공했다. 이 공연의 핵심은 관객들에게 자유로운 글쓰기가 한 사람을 최고의 지성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는데 있을 것이다. 책상은 자유로운 글쓰기를 성공적으로 시각화했다.

<손택:다시 태어나다>는 수전 손택의 일기라는 내용보다는 일기를 쓴다는 것의 의미를 무대 위에서 시각화하는데 더 주력했다. 이로써 극화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단편적 노트와 일기라는 텍스트가 80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매우 풍부하고 화려하게 표현됐다. 이는 빌더스 어쏘시에이션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간 수전 손택이 주장한 미학이 무대에서 실현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공연이었다.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스푸마토〉
안무 라시드 우람단
단체 라.
2013.10.12~10.13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스푸마토〉 재앙의 인생, 그러나 물보라의 아름다움도

김경애 춤평론가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해외초청공연의 대표 레퍼토리 중의 하나인 〈스푸마토(Sfumato)〉(10월 12-13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는 '비', '물'을 핵심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천재(天災)의 일환으로 '비'가 등장한다. 무대 천정의 앞면을 물이 내리는 장치로 활용해 가는 비로부터 센 바람의 폭우까지 연출되어 무대는 물로 차고(얇은 물이지만) 이 얇은 물을 파도치는 깊은 바다로 보이게 한 것은 무용가들의 역센 움직임이다. 무용수들은 힘 있고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자연의 큰 힘과 마주한 인간의 나약함부터 이를 헤쳐나가 생존의 존엄함을 보여주는 거치고 역센 질감의 춤을 보여준다. 특히 물과는 상극인 피아노가 등장하고 이 소리를 라이브로 연출해내는 효과는 무대 위의 물과 거친 환경의 연상, 무엇보다 격한 움직임의 무용수 속에서 섬세하고 정서적인 실바람 같은 것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검은 피아노는 고전악기이지만 현대무용의 무대에 등장하면 모던한 검은 색과 그 형태로 매우 현대적이고 이국적인 다른 차원을 연출하기에 좋은 소품이다. 거기에 생음악의 연주까지 동반해 청아한 소리부터 과격한 두드림까지 가능해 작품의 흐름의 폭을 넓혀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물이 있는 공간에서의 검은 피아노는 현대의 삶속에서의 재앙으로서의 큰 바다의 해일까지를 연출해낸 이 작품의 매우 인간적인 삶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작품명인 '스푸마토'는 르네상스의 회화기법을 뜻한다. '윤곽없이', '안개같이'라는 의미이다. 색을 미묘하게 변화시켜 윤곽선을 없애고 안개 낀 것같이 표현하는 이 기법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창안해 그의 대표작인 '모나리자' 기법이 바로 그것이다. 프랑스의 안무자 라시드 우람단은 이 기법을 무대로 가져와 무용수의 움직임과 무대효과로 입체화했다. 무대는 대체로 검은 편이면서도 안개 낀 풍경의 색감이다. 라인이나 윤곽선이 없이 몸의 경계를 희석시키면서 폭우처럼 쏟아져 내리는 물은 무용수들과는 괴리감을 주면서도 일체화하는 기법이다. 매우 단련이 잘된 무용수들은 이 비와 피아노가 있는 안개빛 풍경 속에서 시적인 아름다움을 연출해낸다.

작품 〈스푸마토〉는 작가 소니아 시암브레토의 시적(詩的) 대사가 삽입된다. 해설에 따르면 원작은 장편인데 시적으로 함축해 작품의 진행에 장을 넘기면서 부분부분 언어로 효과화한다. 내용은 물이 차고 물이 불어나는 상황묘사이다. 이 작품은 '기후난민에 대한 정치-사회적 이슈를 다룬 댄스-다큐멘터리'라는 캐치플레이즈가 붙어있다. '댄스-다큐멘터리'라는 용어가 흥미롭다. 분명 이 작품은 추상적인 이미지의 작품이다. 창작 픽션을 '다큐멘터리'로 붙인 것은 안무자가 삶을 피사체로 사진 찍듯 무대로 옮겨왔다는 의도를 뜻하는데 그 사진 찍듯이 '스푸마토'의 기법이란 것으로 해석된다. 안무자의 눈에는 이 추상적인 춤이 재앙의 인간 삶의 기록인 것이다.

〈스푸마토〉는 안무자가 베트남 여행 중 수몰위기에 빠진 난민들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물 아래 잠긴 인생의 그 안에는 사랑이 포함된다. 화려한 여름날이 있었지만 그날은 갔고 지금은 비의 재앙만이 넘치고 있다. 초자연적인 무대에는 무용수들의 연기와 점점

폭우가 쏟아진다.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이 폭우는 경계를 부수고 안무자가 뜻하는 스푸마토의 기법으로 하나가 된다. 안무자 라시드 우람단은 〈면...〉이라는 작품 구상을 위해 떠났던 베트남여행에서 수몰 위기에 처한 라이-차우지역을 목격했다. 여기서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 그들이 사랑한 것들과 분리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생에 신기루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스푸마토〉라는 작품에 담았다. 자연 앞에 개인이 있고, 집단이 있다. 그 집단을 리드하는 여성을 등장시킨다. 히피 조지아라는 이름의 여성은 마치 무녀처럼 이 재앙의 끝을 보고 있다. 그녀의 격렬한 춤 뒤에 군중의 무리가 마지막 파도를 기다리고 있다. 원형으로 돌아가는 남성들의 춤이 삶의 마지막을 지킨다.

라시드 우람단은 알제리계의 프랑스 안무자로 무용단 '라(L'A)'를 1996년 창단했다. 2007년 라(L'A)로 무용단을 개명해 '다큐-픽션 댄스'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이야기를 기반으로 사실과 픽션을 엮어서 구체적인 이미지와 함께 추상적이고 시적인 춤을 보여주는 특징이다. 그의 〈스푸마토〉는 알제리인의, 즉 무어인(약간 검은 피부)의 관념적인 특성을 떠올리게 한다. 위기를 소재로 삶을 관조하는 그의 춤은 과격하면서 자유롭고 신명이 있다. 희랍인 조르바의 태양의 감수성도 느끼게 하는 지중해의 특성으로도 느껴진다. 폭우를 무대 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뿌려대는 작품에서 우리는 그 이면, 즉 태양의 도시에 대한 그림을 상상하게 된다. 애타게 태양을 그리는 동경이 초자연적인 검은 구름 빛 사이로 번지게 된다. 작품 〈스푸마토〉는 폭우의 공포 속에서도 물보라의 아름다움이 있는 삶의 과정을 그린 감동이 있는 작품이다.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What the Body
 Does Not
 Remember〉
 안무 빔 반데키부스
 단체 울티마 베즈
 2013.10.25~10.26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왓더바디 더즈낫 리멤버〉 몸은 기억하지 않는다 다만 펄떡거리는 심장만 남길 뿐...

이지현 춤비평가

20여년 지난 작품이 마치 바로 얼마 전 성황리에 끝나 다시 무대에 올려진 것처럼 관객을 이토록 생생하게 흥분시키고 있는 작품이 얼마나 될까? 2013 SPAF의 폐막작으로 올려진 〈What the Body Does Not Remember〉(울티마 베즈, 빔 반데키부스 안무/ 이하 〈왓더바디〉)가 올려진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의 로비와 객석은 오랜만에 매진과 만석의 열기로 달아올랐다. 이미 2003년과 2008년 내한공연을 한 바 있으며 그 중 2008년 〈슈피겔〉에서 〈왓더바디〉의 벽돌장면 등 몇 장면을 발췌해 선보인 바 있으나 이번이 〈왓더바디〉를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일 것이다.

무대 중앙에 평범해 보이는 작은 책상에 앉아 손가락과 주먹을 이용해 책상을 긁거나 두드리는 것으로 자극적인 음색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맞춰 두 무용수가 대칭적으로 계식훈련처럼 절도 있고 강도 높은 움직임으로 시작되는 첫 장면은 가히 춤과 음악의 독창적 결합과 강렬함으로 단박에 관객의 감각을 점령한다. 이어지는 벽돌을 던지고 낚아채고 떨어뜨리는 장면, 옷과 큰 타월을 이용한 장면, 깃털을 붙여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는 유머러스 한 장면 등 각각의 독립된 장면으로 오브제를 달리하며 진행되다가 달리고 서로의 몸을 잡아 던지고 굴리면서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여성과 남성으로 된 커플 여러 쌍 등장하여 폭력적 상황, 특히 여성에 가해지는 폭력을 함축하는 장면으로 위기감을 고조 시켜갔다.

이 작품은 안무가 빔(Wim)이 전공하던 심리학을 접고 안 파브르의 작품 〈The Power of Theatrical Madness〉(1982)의 단원으로써 2년여 생활을 마감한 뒤 ‘울티마 베즈’를 창단(1987)하면서 올린 첫 작품이다. 바로 25살의 그를 스타로 만든 작품이자 현대춤의 기류를 벨기에 중심으로 만든 역사적인 작품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뿌리에는 자연스럽게 극단을 넘어서려는 잔혹극의 흐름 속에서 진행된 안 파브르의 극장적 실험이 깔려 있는 것은 당연하다. 몸을 의식과 분리하여 완벽한 하나의 개체로 독립적으로 다루는 실험적 감각, 즉 그가 말하는 “몸이 선택할 수 없는 상황, 말하자면 상황이 몸을 결정해 버릴 그 위기의 순간”에 몸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 몸을 더 순수히 보기 위해 기억이나 인식은 실험의 대상에서 지워버리고 상황이 지나 간 뒤 헛떡거리고 완전히 소진된 몸에 대한 물질적 집중이 이 작품 현장성의 초점이다.

작품을 극장적 볼거리로서의 완성도를 높여 주는 또 한 축은 음악의 요소이다. Peter Vermeersch, Thierry De Mey의 음악은 이후에도 빔이 고집하듯이 장면을 만들 때 움직임과 같은 비중으로, 동시적으로 함께 만들어진 결과이다. 춤이 음악에 종속되어 왔던 끈질긴 역사는 빔에게서 또 한번 새롭게 극복되고 보다 안정적인고 완성도를 갖추면서 서로 결합된다. 그 결과 관객은 청각적 불편함 없이 춤에 빠져들 수 있거나, 감각적 시너지를 통해 보다 강렬한 춤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이들은 80년대 초

부터 벨기에의 또 다른 여성 안무가 안느 테레사 드 키어스메커와 함께 작품을 해 온 음악가들로 자연스럽게 안느의 작품에서 강화된 음악적 결실들이 빔의 작업으로 이어지게 된다.

유럽 현대춤의 흐름을 적절히 승계하면서 몸에 가해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무대 위에서 극장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낸 빔의 추구는 〈왓더바디〉에서 안 파브르의 것처럼 ‘혐오’에 편중되거나 안느의 것처럼 진공적인 상황의 ‘무미함’에 빠지지 않으면서 극단성과 긴장감은 적절히 가져오면서 무대를 현장성 있게 만드는 데 성공하였고 그 결과 벨기에 현대춤의 새로운 고전에 등극할 수 있었다. 빔이 구축한 ‘위기에 내몰리는 순간’에 대한 포착과 그것이 무대 위에서 반복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것이 되기 위한 안정적 짜입새 사이의 역설적 긴장감은 이 작품의 미덕이 되어 25년이 지난 지금에도 관객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지금의 눈으로 보면 나열적 연결이나 단순한 안무 구성 등은 빈약해도 신선하다. ‘게임성’ 가득한 장면에서는 거친 것이 오히려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고, 스물다섯 청년의 패기로 인정될 수 있으나 여성에 부과된 폭력적 상황을 다루는 장면에서 남자들의 손이 양팔을 벌린 여성의 마네킨처럼 굳은 몸을 더듬고 움켜 쥘 때 그의 몸 실험은 머뭇거리며 어떤 것도 건져 올리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이 장면만이 아니라 몸 반응을 다룬 장면에서 조금 깊이 있는 것을 원할 때 〈왓더바디〉가 그 표피 이상 무엇을 보여주었는지는 의문이다. ‘실험실에 갇힌 몸’은 위기에 쏟아져 나오는 아드레날린이 난무하는 펄떡거림은 잘 보여 주었으나 위기에 몰린 ‘인간의 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진입은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핀의 오후〉

〈소용돌이〉

연출·안무·무대

피아 메나르

단체 논 노바

2013.10.19~10.22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핀의 오후〉, 〈소용돌이〉 기술이 예술이 되어 사물에 생명을 불어넣다

김예림 무용평론가

2013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이하SPAF)의 화제작 〈핀의 오후〉와 〈소용돌이〉가 10월 19일-22일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이 중 〈핀의 오후〉는 오전 11시, 오후 3시에 공연되며 SPAF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만 4세 이상 입장가라는 이례적 관람 등급을 정했다. 같은 날 시간을 달리하여 공연된 〈핀의 오후〉와 〈소용돌이〉를 보고 혹자는 두 공연이 한 작품의 어린이 버전과 어른 버전이 아닌가 하지만 엄밀히 이 두 공연은 (기술적으로 동일한 메커니즘을 쓰지만) 별개의 작품이다. 1998년 창단된 논 노바 컴퍼니는 무대장치와 연출기법에 무게를 두고 장르를 초월한 작품을 발표해 온 단체로, 안무가이자 연출가, 퍼포머인 피아 메나르를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가와 기술자들이 모여 종합 프로젝트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이들의 공연물은 보는 시각에 따라 춤, 연극, 마임, 저글링 등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초기에는 저글러를 중심으로 한 비디오 설치를 주로 해오다 열음, 바람 등 다양한 소재에 기술을 더한 퍼포먼스 작품들을 발표하고 있다. 필립에서 피아로 개명하며 새로운 성 정체성을 선택한 트랜스젠더 아티스트 피아 메나르는 〈소용돌이〉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

이 두 작품은 같은 무대를 사용했는데, 무대 위에 객석을 마련하고 그 중심에 16개의 선풍기에 둘러싸인 원형 무대를, 천정에는 원형의 갓을 설치한 모습이 이국적이고 은밀한 인상을 풍겼다. 이 원형 테두리의 갓은 단순 장식이 아니라 이번 공연에서 선풍기만큼 중요한 기술의 핵심장치이다. 먼저 공연된 〈핀의 오후〉는 드뷔시의 음악 〈목신의 오후〉를 사용했는데 산을 타고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을 뜻하는 핀(Foehn)과 목신이라는 뜻의 핀(Faune)의 발음이 유사한 것을 이용한 유희가 빛나는 제목이다. 관객이 입장하는 동안 검은 망토로 마법사를 연상케 하는 여인이 가위와 테이프를 비닐을 오려 붙이고 있는데 완성된 것은 사람모양의 비닐봉지다. 이를 구겨 무대 중앙에 놓고 퇴장하자 마법이 시작된다.

구겨진 비닐이 서서히 몸을 퍼더니 팔 다리를 부풀려 직립하는 것도 모자라 춤을 추듯 경중 뛰기도 하는 것이다. 선풍기 바람과 가벼운 비닐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 둘 늘어나는 색색의 비닐 인간들이 회전과 점프로 춤추는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영화의 특수효과를 보는 것만 같다. 검은 망토의 여인이 머리 가득 달고 나온 흰 비닐들을 공중에 띄우자 대형 군무가 펼쳐지는데 그보다 놀라운 것은 이 비닐 인간들이 여인의 어깨에 차례로 올라타거나 거꾸로 든 우산 안에 우르르 모이는 것이다. 더 놀랐다는 아이들이 타이름에 승복하고 하나 둘 뛰어드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더 이상 비닐봉지가 아닌 생명체로 인식되어간다. 이어 등장한 황금색 비닐의 용은 족히 2미터는 되는 몸통을 휘저으며 꼬마 비닐인간과 결투를 벌인다. 아무리 정확하게 재단하려해도 바람이라는 것은 우연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 둘의 결투는 와이어를 단 인형극 보다 더 정교하고 사람의 움직임보

다 빠르게 춤춘다. 우연이겠지만 비닐인간이 잠시 용의 등에 올라탔다가 떨어지는 장면은 탄성과 환호를 불러일으켰다. 어린이 관객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든 〈핀의 오후〉는 보잘 것 없는 일상의 사물로 환상적 에피소드들을 만든 시간이었다.

같은 날 저녁시간에 공연된 〈소용돌이〉는 좀 더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비닐뿐 아니라 인간 몸의 퍼포먼스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작은 〈핀의 오후〉와 마찬가지로 관객이 입장하는 동안 비닐을 자르고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온 몸을 가린 거대한 인물이 풍기는 미스터리한 인상은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귀여운 비닐인간들의 춤을 보여준 것도 잠시, 〈핀의 오후〉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다.



〈소용돌이〉 ©Jean-Luc Beaujault

비닐 인간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것이다. 검은 양복과 모자, 얼굴을 감싼 인물(피아 메나르)은 성별도 캐릭터도 알 수 없이 비대한 몸을 뒤뚱거리며 한 꺼풀씩 옷을 벗는데, 사람모양의 검은 허물을 벗자 바람에 의해 직립한 비닐거인이 그를 위협한다. 피아 메나르는 마치 악몽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듯 거친 몸짓으로 비닐인간과 2인무를 춘다. 이어 몸속의 투명 비닐을 배설하듯 뿔아내자 붉은 조명 안에 대형 소용돌이가 만들어진다. 마치 무대 위에 토네이도가 위협적으로 서있는 것만 같은 이 장면은 어떠한 회화나 비디오 아트보다 초현실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바람이 멈추고 살색의 몸을 드러낸 피아 메나르는 나약하고 힘겨워 보인다. 이 때 불룩한 배 안에서 검은 비닐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데 강렬한 바람을 타고 허공에서 엉기며 검은 소용돌이를 만드는 (10미터는 족히 넘는) 모습은 극장 전체를 악령의 기운으로 채울 듯한 기세다. 최고 전력으로 돌아가는 선풍기의 소리도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효과가 된다. 바람이라는 요소가 주는 과민, 불안감의 절정 이후 고요해진 무대에 남은 맨몸의 피아 메나르는 그가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한 '존재의 자유' 그것을 향한 여정을 마친 홀가분한 모습이다.

논 노바 컴퍼니의 〈핀의 오후〉와 〈소용돌이〉는 일상의 물건들 가운데 가장 흔하고 보잘 것 없는 비닐봉지들이 고품격의 예술작품으로 탄생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술'이 '예술'의 주축이 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사물'에 생명을 불어넣어 스스로 움직이는 '퍼포머'가 되게 했다. 예술에서 독창적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실현 가능케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핀의 오후〉와 〈소용돌이〉가 바람이라는 메커니즘 하나로 만들어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가치를 갖는 이유도 수많은 실험과 연구 끝에 상상을 실현해냈다는데 있다. 이들의 공연이 어느 장르에 속하는가는 중요치 않다. 사물이 하나의 존재감 있는 무용수가 되어 무대를 구성하게 하는 것은 분명 안무였고 춤의 확장이었다. 비닐봉지의 춤! 그 발칙한 상상력은 21세기 공연예술의 진화가 어디까지 와있는지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2013 SPAF 초청작 가운데 공연예술의 동시대성을 논하는데 울티마 베즈, 라시드 우람단보다 더 큰 화두로 떠오른 비닐봉지의 반란 〈핀의 오후〉, 〈소용돌이〉는 단연 SPAF 최고의 공연이었다. 15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크라임〉

연출 이벨리나 마르치니아

단체 페아트르 폴스키

비엘스코-비아와

2013.10.23~10.26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크라임〉

에너지와 흡인력 넘치는
포스트모던 미학과 해체적 서사

김성희 연극평론가

〈크라임〉은 2013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작품들 중 필자가 가장 흥미롭게 본 공연이었다. 폴란드의 거장 고프로비치의 두 단편 〈범죄〉와 〈코스모스(cosmos)〉를 영감받아 만든 텍스트는 파편적이고 해체적인 포스트모던 서사 전략을 구현했고, 연출가 이벨리나 마르치니아는 20대의 신예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긴장과 유머, 에너지가 넘치는 독창적인 형식 실험을 보여주었다. 배우들은 몸과 의상, 목소리, 제스처, 춤, 거친 액션, 퍼포먼스, 즉흥연기 등 현란한 변화로 직조된 앙상블 리듬을 다채롭게 펼쳐냈다.

연극은 관객이 객석에 입장할 때 이미 시작되어 있다. 무대는 중앙에 화려한 원색 프린트의 벽과 사각의 단(아마도 거실), 원편 빈 공간에 칠판이, 오른편엔 액자와 몇 가지 소품들이 놓인 빈 공간이 있다. 정장을 차려 입은 엄마와 벽지 프린트와 똑같은 상의를 입은 딸, 두 여배우가 초조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무대 위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입장하는 관객들에게 착석을 안내하기도 한다. 그리고 범죄극에 어울릴 법한 불안한 정서의 음악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연극의 시작은 이중적 면모, 즉 범죄극 장르 특유의 불안한 분위기와 퍼포먼스성을 드러낸다.

문을 열라는 노크소리가 나와 엄마는 집안에 없는 척하고 문을 열어주지 말라며, 이것은 상대방과 벌이는 ‘게임’이라고 말한다. 논리적 추리와 해석을 전복시키는 서사의 갈래들, 서로 상충하는 진실들, 인물들이 벌이는 그로테스크하고 즉흥적인 행동들은 다분히 즉발적이고 우연적이고 다양하게 분기한다. 이런 점에서 연극 전체가 일종의 게임과 같은 성격을 보여준다. 집으로 들어온 형사는 한 달 전에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직장에 나타나지 않는 아빠를 수사하기 위해 왔다고 밝힌다. 이것은 범죄극의 전형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연극은 장르의 관습과 규약을 도발적으로 전복시키며 의혹과 혼돈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퍼포먼스적으로 전개된다. 가족들은 아빠의 죽음과 그 원인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한다. 딸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형사를 유혹하려 하고, 갑작스럽게 고모가 등장하고, 은둔형 외톨이 아들은 침묵 속에 무대 바깥과 객석 통로를 돌아다니거나, 칠판에 그림을 그린다. 가족들은 모두 아빠의 살해에 관련되었을 듯 싶는데, 제각각 범죄동기를 은연중에 드러내다가 이를 부정하는 양면적 언어를 구사한다. 그 때문에 관객은 아빠의 죽음이 과연 사실인지, 가족들 중 누가 그를 죽였는지,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연극이 모호하고 난해하게 다가오는 것은 ‘범죄극’ 장르의 관습, 즉 “누가 그를 죽였는가?(후턴잇)”에 대한 논리적 추리, 해석이 아닌, 의도적인 해체와 혼돈의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 연극의 서사전략은 미메시스(mimesis: 모방)과 그에 상충하는 디에제시스(diegesis: 서술)를 다양하게 교직시켜 실재를 혼돈에 빠뜨리는 것이라 할 만 하다. ‘후턴잇’과 관련해 보자면, 고양이 독살과 관련된 엄마의 행위, 찬장 속에서 거거하는 은둔형 외톨이 아들의 아빠에 대한 적의, 나이많은 남자와 사귀는 문제로 마찰을 빚은 딸 등, 가족들 하나하나가 다 범죄 동기를 갖고 있는 듯 제시된다. 이처럼 가족들의 살해동기가 파편적으로 암시되는 동시에 엉뚱한 말과 행

동으로 부정되고, 여기에 이 가족들의 실명이 등장하는 ‘일가족 살해사건’에 관한 뉴스 형식의 디에제시스가 교직된다. 엄마나 딸은 각각 자신이 주체가 되어 저지른 일가족 살해사건을 진술하고, 이들은 칠판에 가족을 칼로 찢러 죽이는 그림과 한국어 ‘아빠’라는 글자를 쓴다. 그런가 하면 베이스연주자가 등장하여 일가족의 집단자살, 혹은 아빠가 식사 중 가족 모두를 살해한 사건을 진술한다. 이 5가지 진술(그림도 포함하여)은 범죄의 주체는 다르지만 가족 구성원이 동일하며, 서술자에 따라 각각 범죄의 주체가 다르다. 바로 이러한 반복과 차이에 의해 혼돈과 모호성이 증폭된다. 연극은 동일한 내용(일가족 살해사건)의 다양한 변주를 통해 논리와 해석을 해체시키며, 그것이 주는 독특한 효과에 주목하도록 만든다. 의미의 자리바꿈과 다양한 변주가 만들어내는 효과는 물론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의 가족 살해사건들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동일한 실명의 일가족 살해 사건에 대한 다양한 변주는 가상과 실제의 차이를 모호하게 만들며 그 구별 자체를 무효화시킨다. ‘범죄의 주체(후턴잇)’나 ‘범죄의 방식(하우턴잇)’을 다양하게 변주하고 있는 이 뉴스 진술은 현실세계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현대 대도시 가족의 불행한 범죄 사건들, 혹은 가능한 범죄들을 호출한다. 형사의 말처럼 “가족은 안정과 조화를 주는 오아시스”일 수도 있고, 역으로 증오와 살해가 일어나는 끔찍한 관계일 수도 있다. 타자간이 아닌 가족 간에 벌어지는 ‘크라임’ 사건을 통해 우리는 현대사회 가족의 위치와 관계에 대한 불길한 그림자를 응시하게 된다.

연출은 엉뚱함, 비논리, 의외성 같은 텍스트의 전략을 파편적이고 해체적인 포스트모던 미학과 현란한 퍼포먼스적 연기, 장면만들기로 구현했다. 현란한 색채감의 벽지, 황금색 해골들은 ‘범죄’의 물질성을 드러내는 오브제인 동시에 증식된 가짜 이미지로서 허구성과 놀이적 성격을 과시했다. 벽지와 동일한 무늬의 의상을 입은 딸이 벽을 뚫고 퇴장하고, 반바지를 입은 아들이 음침한 표정으로 객석을 돌아다니는 것, 음식이나 여타 소도구가 필요할 때 벽의 서랍이 열리고 꺼내는 효율적 장치, 엄마나 고모, 딸이 의상을 갈아입거나 벗고 붉은 가발을 쓰고 춤을 추거나 육체를 현시하는 행위, 딸이 황금색 해골을 형사에게 집어던지며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 아빠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관객에게도 묵념을 강요(“시끄러!”라는 한국어 대사)한다든지, 즉흥 연기 장면에서 딸이 객석을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빌려와 무대 한편에 쌓아놓는 수행적 행위는 무대와 객석의 경계, 리얼리즘의 틀을 파괴하는 퍼포먼스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흡인력을 보여주었다. 각 장면들은 예측불허의 다채로운 색깔과 에너지, 유머러스한 리듬으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의혹과 혼돈과 의외성을 점층시켜 가는 장면 만들기, 서스펜스와 도발, 현란한 놀이성을 창의적으로 직조한 연출의 힘과 매력이 생동한 무대였다. 한편 서사의 축과 단절된 연주자의 등장과 진술 장면은 재현과 재현의 거부를 가로지르는 서사의 축에 대한, 곧 허구와 퍼포먼스적 놀이들, 은폐된 욕망들을 바라보는 외부자의 시선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이 안정과 조화의 오아시스라는 이상은 과연 실현 가능한가? 가족관계에서 보여지는 표층적 이미지와 은폐된 실재는 무엇인가? 수많은 뉴스 보도는 얼마만한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연극은 ‘후턴잇’을 찾던 관습적 사고를 전복한다. 연극이 은폐된 진실을 찾는 게임이나 놀이의 형식을 열린 구조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감추어진 것 속에 숨어있는 진실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게 만든다.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리어왕〉

연출 스킨키 다다시

단체 도가 스킨키 컴퍼니

2013.10.8~10.9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극단 SCOT의 〈리어왕〉

압도적 형식미에 가려진 리어의 비극

이은경 연극평론가

도가 스킨키 컴퍼니(SCOT)의 〈리어왕〉은 베세토연극제(1994)에서 초연되어 우리 연극계에 세계적 연출가 스킨키 다다시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키운 작품이다. 스킨키의 연극세계가 집약된 〈리어왕〉은 ‘스즈키 메소드’라고 일컬어지는 양식적인 연기법을 기반으로 ‘인간 세상은 정신병원’이라는 현실인식을 충실하게 담아낸다. 2013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 초청된 〈리어왕〉은 한일 합작으로 새롭게 제작된 이중언어극이며, 여성배우도 등장했다는 점에서 초연과 달라졌다.

스즈키가 밝혔듯이 〈리어왕〉은 ‘노인의 고독과 광기’에 집중한다. 그렇기에 원작의 중심사건을 충실하게 따르면서도 딸들의 효심을 시험한 리어, 아들의 효심을 의심한 글로스터의 이야기로 압축된다. 이 과정에서 켄트백작 등 일부 인물들이 삭제되고, 광대는 간호사로 대체된다. 이성을 잃은 노인의 광기는 몰락을 자초케 한 개인적 결함이며, 정신병원인 세상에서 광기는 이미 예정된 것이다. 그리고 홀로 환상을 헤매는 노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고독뿐이다. 이처럼 리어로 대표되는 노인드라마이기에 팜플렛에도 리어가 아니라 대명사인 노인으로 표기된다. 공연은 첫 장면부터 주제를 암시하며 시작된다. 등을 구부린 채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무대 전면에 일렬로 배치된 미닫이문들을 지나 무대 중심으로 느리게 나아간다. 그의 옆에는 간호사가 책을 들고 서 있다. 노인의 얼굴에 집중되는 낮은 측광으로 무대는 전체적으로 어둡다. 한 마디의 대사도 없지만 병든 노인의 고독감이 이미지만으로 충분히 표현된다.

공연의 기본 콘셉트는 병원에서 죽어가는 리어가 간호사가 읽어주는 책을 들으며 자신의 삶을 회상하는 것이다. 리어는 극적 인물로 사건에 개입하거나 관찰자로 사건을 지켜보며 공연 내내 무대에 존재한다. 그는 ‘리어왕’일 때를 제외하곤 미닫이 문 안팎의 경계에 앉아 객석에 등을 돌리고 있거나 문틀에 머리를 기대는 등 다른 인물들과 유리된 존재임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연출을 통해 미닫이 문 안팎은 정신병원/환상세계, 죽음/삶의 공간으로 대비된다.

배우들은 충실하게 ‘스즈키 메소드’를 구현한다. ‘스즈키 메소드’는 희곡의 언어를 관객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배우의 발성과 감정 표현을 극대화하는 연기법이다. ‘내재되었던 동물적 에너지’를 끄집어내기 위해 육체적 능력을 회복시키는 배우훈련을 혹독하게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킨키의 배우들은 온 몸의 에너지를 모아 지르듯이 내뿜는 발성으로 대사를 해 언어적 의미 전달에 집중한다. 분수처럼 쏟아지는 침만으로도 배우들이 얼마나 강렬하게 에너지를 쏟아내는지 확인하게 된다.

스즈키 본인은 부인했지만 그의 작품에는 일본색이 두드러진다. 배우들은 일본 전통극처럼 장식적인 움직임은 배제하는 절제의 연기를 보여준다. 등퇴장 시에는 닌자처럼 한껏 웅크리고 발끝으로만 달리 듯 걷는 독특한 걸음걸이로 직선·사선으로만 움직인다. 미닫이문이 닫히거나 인물의 감정이 고조될 때에는 ‘딱’하는 강렬한 효과음이 들린다. 일본 전통극에서 무대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청각적 효과로 사용하는 효시기(拍子木) 소리와 유사하다.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한 과장된 연기법인 미에(見得)처럼 극적 감정이 절정에 이르면 ‘딱’ 소리와 함께 연극적 타블로(Tableau)를 연출하여 배우의 연기를 강조한다. 의상은 일본의 전통복의 변형으로 보이는데, 기모노와 무사복을 연상케 한다. 그렇기에 현대적인 간호사복을 입은 간호사와 장식적이지 않은 자연친화적 분위기의 의상을 입은 코딜리어는 다른 인물들과 구별된다.

조명은 연출의 의도를 세련되게 반영하고 있다. 대극장 긴 무대 좌우에서 낮게 비추는 측광은 관객의 시선을 무대 아래쪽으로 낮추어 웅크리고 있는 리어의 시선을 따라가게 만든다. 천장에 매달린 격자무늬 창을 통해 비추는 간접조명은 무대 전체를 창살 속의 병원으로 상징한다. 미닫이 문 안팎을 구별하는 조명 역시 공간의 의미를 환기시킨다. 하지만 독자적인 스킨키의 연극세계가 우리 관객에게 낯설지 않다. 그의 스타일이 충실하게 담긴 여러 편의 작품을 이미 만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평면적인 사건진행과 모노톤으로 반복되는 연출의 익숙한 미학을 2시간동안 지켜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일본 배우들과 한국배우들의 발성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움직임의 편차가 커서 극적인 앙상블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연기훈련이 충분하지 않은 배우가 양식적인 ‘스즈키 메소드’를 구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스킨키와 우리 배우들이 함께 했던 〈엘렉트라〉(2008)가 혹평 받은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세 딸들이 오르골 속의 인형처럼 원형으로 움직이고, 열린 미닫이문 안에서 간호사들이 군무를 춘 것도 독립적 미장센으로는 인상적이었지만 극적 상황과 어울리지 않아서 의미가 모호했다.

마지막 장면에서 책을 덮으며 큰 소리로 웃는 간호사 옆에서 리어는 죽어간다. 그로테스크한 간호사의 존재만큼이나 노인 리어의 고독감이 오롯이 살아나야 했다. 하지만 노인의 비극은 형식미에 압도되어 관객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또한 70대가 넘는 노년의 연출가가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노년의식이 20년 전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점도 아쉬웠다. ▣



울티마 베즈의 오디션 & 워크숍

글 오선명 한국공연예술센터 문화사업부 SPAF 무용PD

2013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폐막을 장식한 벨기에 울티마 베즈 무용단의 국내 첫 오디션 소식은 마치 필자가 지원자라도 된 듯 가슴을 설레게 하였다. 2014년 신작은 7명의 퍼포머와 댄서들로 구성된 작품인데 통상 그들의 오디션이 치열한 경쟁률에서 선발되는 것이라 멀리 외국에 나가지 않고서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회가 아니던가. 이번 오디션은 세계 3개국에서 순차적으로 펼쳐졌는데, 포르투갈 리스본, 벨기에 브뤼셀, 한국의 서울이며 동시적으로 월드 오디션이 공지되었고, 역량 있고 끼 있는 전 세계의 무용수들의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오디션은 안무가인 빔 반데키부스(Wim Vandekybus)가 직접 진행을 하였고, 주역무용수로 활약했던 로라 아리스(Laura Aris)가 어시스턴트로 참여하여 멋진 시범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오디션은 SPAF기간 내 10.25~26일 이틀간 오전부터 오후까지 아르코예술극장 스튜디오 다락에서 진행되었다. 울티마 베즈의 유명세답게 지원자들이 많은 터라, 1차 오디션은 1그룹 당 25명씩 총 6그룹으로 나눠 시간대별로 진행되었고, 1차 때 선택된 27명만이 다음날 2차 오디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예상

대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타이완, 호주, 미국, 유럽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무용수들의 지원은 울티마 베즈의 인기와 열기를 증명해주었다.

오디션 제의가 왔을 당시, 지원자들에게 번호를 붙여 진행의 편리함을 도모하려 하였다. 그러나 안무가는 강한 의지로 번호 없이 일일이 눈을 맞추고 직접 질문을 했다. 그것은 오디션의 긴장을 완화시켰고 참가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빔 반데키부스의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가 있었다. 1차 오디션이 시작되고 빔 반데키부스는 한사람씩 이력서를 받으면서 지원동기, 춤의 경력, 직업 등을 직접 물어봤고, 다함께 가볍게 워업(warm up)을 한 후 가장 기본적인 걷기, 뛰기, 구르기- 플로워 워크(Floor work)-안무동작군 따라하기(Choreographic sequence)로 이어졌다. 무용에 있어서 걷고-뛰고-구르기는 기본이라 3가지 동작군만 봐도 울티마 베즈가 원하는 스타일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50분의 오디션이 끝난 후, 빔 반데키부스는 직접 그 자리에서 원하는 무용수를 'You'라고 가리키며 다음날 2차 오디션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국제적 오디션을 처음 보는 무용수들에게는 잔인하고 직접적인,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다. 그룹당



아르코예술극장 스튜디오 다락에서 열린 1차 오디션

평균 3~4명 정도의 무용수들이 선택되었고 그들은 다음날 더욱 치열한 2차 오디션에 참가하는 기회를 가졌다.

2차 오디션은 그 전날보다 경쟁은 덜 하지만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과 치열함이 더해져서 아침부터 상기된 얼굴의 지원자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혼자하기 보다는 주로 듀엣 또는 그룹을 지어서하는 아틀리에 형태의 작업으로 진행되었고, 오후부터는 보통 오디션의 피날레라 할 수 있는 즉흥(Improvisation)이 주를 이루었다. 한국의 어린 무용수들은 기본이 워낙 잘되어 있어서 동작을 따라하는 것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앞선다고 안무가도 인정한 바있다. 하지만 즉흥연기상황의 순발력과 표현력에 있어서는 익숙하지 않은 어색함과 당황함이 역력하였다. 춤을 못 추어서도 아니고 영어를 못해서도 아닌 즉흥적인 연극적 표현력은 역사적으로 탄초 시어터나 피지컬 시어터에 익숙한 유러피안들에게는 오디션 때 마다 자주 등장하는 에피소드이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이 정립되지 않은 한국무용수들에게는 생소하고 몸에 맞지 않은 작업형태였을 것이다.

빔 반데키부스는 오디션 내내 관심이 있는 무용수들을 카메라로 직접 찍어냈다. 그는 그렇게 그의 카메라에 담긴 무용수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고심하고, 그 안에서 또 선발하여 브뤼셀에 모아놓고 더 치열한 오디션을 한다는 의도이다. 그렇게 거의 700:1의 경쟁률에서 선발된 이들이 오늘날의 울티마 베즈 작품의 무용수로 당당하게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사실 선발되지 않는다고 해도 젊은 무용수들에게는 발에 생채기가 나고 무릎에 멍이 들었어도 그 이상으로 값지고 멋진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워크숍 또한 오디션과 같은 날 오전, 대학로예술극장 스튜디오 하이에서 진행되었다. 40명 정원이었지만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쇄도하는 참가자들로 인해서 47명의 인원으로 마감되었다. SPAF의 대미를 장식한 <What the Body Does Not Remember>의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클래스가 펼쳐졌는데, 울티마 베즈의 원멤버인 '에두아르도 토레자(Eduardo Torroja)'의 수업으로 독특하고 에너지 넘치는 몸의 언어로 이루어졌다. 아침 9시30분부터 진행된 터라 다소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요동작인 바닥을 짚는 발 스탬프 동작은 건물을 흔들 만큼 파워풀하여 대학로 아침을 힘차게 열어주었다. 울티마 베즈의 야성적인 행보만큼 이틀간의 워크숍은 참가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



빔 반데키부스가 2차 오디션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빔 반데키부스는 오디션 응시자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고 직접 질문했다.



관심 있는 무용수들을 다시 한 번 보기 위해 카메라로 찍고 있는 빔 반데키부스

환상동화

Fantasy Fairy Tale

2013.12.6^{Fri} ~ 2013.12.15^{Sun}
12.6^{Fri} 8pm / Weekdays 4pm, 8pm
Sat 3pm, 7pm / Sun 2pm, 6pm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Daehangno Arts Theater Main Hall

주최 (주)이다엔터테인먼트, 극단 시인과 무사,
한국공연예술센터

작연출 김동연

출연 오용, 최요한, 이현철, 송재룡, 이갑선, 이원,
최대훈, 황지노, 김호진, 이현배, 신성민,
양잉고, 김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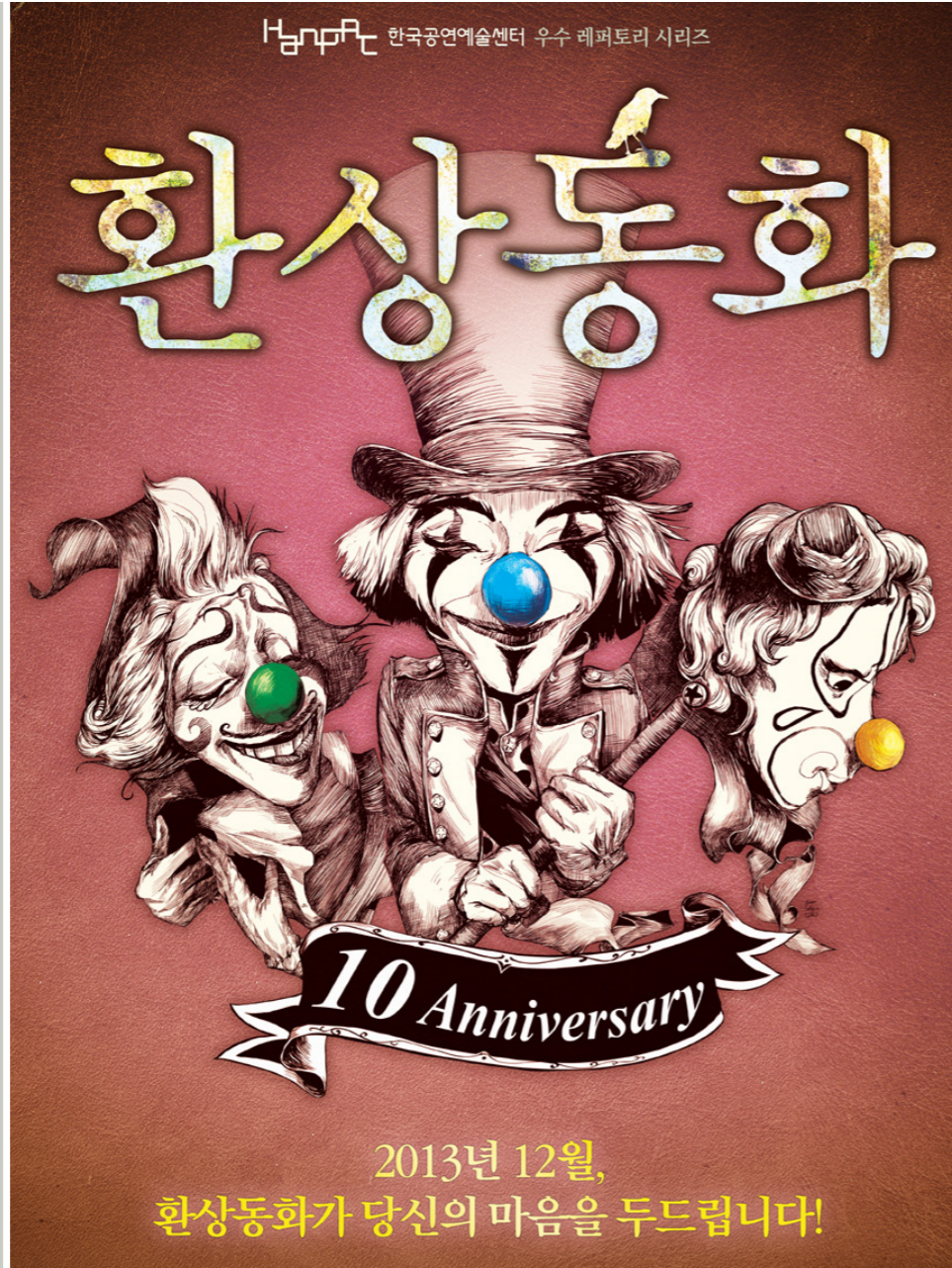
문의 Contact (주)이다엔터테인먼트 02-762-0010

예매 Book 한국공연예술센터 www.hanpac.or.kr
02-3668-0007, 인터파크 1544-1555,
클럽서비스 1577-3363

관람료 Price R 50,000 / S 40,000 / A 30,000

관람연령 Rating 14세 이상 15 and over

공연시간 Duration 100분 100mins



당신의 마음을 뛰게 할, 단 하나의 러브스토리. 소극장 창작연극의 신화, 환상동화가 대극장으로 돌아온다.

작품설명

예술, 전쟁, 사랑 광대가 들려주는 판타스틱 러브스토리. <환상동화>는 세 광대의 등장으로 시작된다. 전쟁광대는 인간의 파괴 본능을 자극하는 전쟁을, 사랑 광대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애절한 사랑을, 예술광대는 영원불멸의 가치를 창조하는 예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소리를 잃어버린 피아노를 치는 남자 한스와 시력을 잃어버린 춤추는 여인 마리를 중심으로 전쟁터와 카페를 오가며 <환상동화>의 이야기는 진행된다. 전쟁으로 비유되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 광대들은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마지막이 들려줄 것이다.

기획의도

세상이 잘 만들어진 한편의 연극 같았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 다른 세계를 창조하듯 세상도 좀 더 화해하고 서로 어울려서 동화 같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환상이라고, 세상은 파괴와 경쟁으로 발전하는 '전복의 역사'의 반복이라고, 그것이 바로 현실이라고 말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누군가는 동화 같은 세상을 꿈꾸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은 아름답다'라는 지겨운 거짓 말을 준비하고 '누구나 재미있게 들어줬으면하는 불안한 소망을 품는다. 드디어 준비한 거짓말들이 무대에서 환상을 만든다. 사람들이 이 환상을 즐겁게 공유한다면, 그래서 아주 조금이라도 세상이 달라진다면 행복할 것 같다.

시놉시스

세 명의 광대들이 등장,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다룬다. 광대들은 전쟁, 사랑, 예술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각자 이야기하며 싸우다가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는 이야기를 하기로 합의한다.

전쟁, 외로움, 그리고 견딜

전쟁은 악몽이 아니라 현실이다. 삶에 대한 희망도 혹은 온전한 몸으로 죽을 희망조차도 없는 곳에서 음악가 한스는 적군과 만난다. 잠시 후,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도 잊은 채 이들은 따뜻한 커피와 음악, 그리고 아름다운 여

인이 춤을 추는 카페를 상상한다. 이렇게 이들은 외로움을 견디고 있었다.

만나다. 느끼다. 사랑하다.

인간이 만들어낸 전쟁의 소리와 빛은 한 여인에게선 눈을, 한 남자에게선 귀를 빼앗아 갔다. 시력을 잃은 마리는 춤을 잃어버렸고 청력을 잃은 한스의 귓가엔 포성소리만 들린다. 그들은 카페에서 만났고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며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간다. 한스와 마리의 만남은 사랑을 만들어 내고, 사랑은 환상을 만들고, 그 환상은 현실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한스와 마리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했던 음악과 춤을 되찾게 된다.

여전히 전쟁은, 사랑은, 예술은 계속된다.

광대들은 이야기의 결말을 고민한다. 다시 포성이 울리고 이별해야 하는 한스와 마리.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계속 되었다. 영원히 연주될 음악처럼, 결코 멈추지 않을 춤처럼. 그리고 사라지지 않을 전쟁의 포성처럼... 그렇게 계속 되었다.

단체소개

이다. EDA Entertainment

(주)이다엔터테인먼트는 1995년 공연기획제작사로 출발하여 연 평균 10~15편의 공연을 기획, 제작하고 있다. 국내 연극 및 창작 뮤지컬의 저작권 에이전트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2009년 12월 관객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대학로 '아트원씨어터'를 개관하여 연간 30만 명의 관객을 유치하고 있다. 작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잠재력과 가능성을 소유한 신진 예술가 발굴, 그들과 함께 새로운 작품을 창작해 내고, 곳곳에 숨어 있는 작품을 찾아 관객들에게 끊임없이 선보이고 있다.



Un:truth

Un:truth

2013.12.2^{Mon} ~ 2013.12.4^{Wed}
전시관람시간 1pm~4pm, 6pm~10pm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Arko Arts Theater Small Hall

주최·주관 박종원
작가·연출 박종원

문의 Contact 한국공연예술센터 02-3668-0007
예매 Book 한국공연예술센터 www.hanpac.or.kr
02-3668-0007

관람료 Price 3,000
관람연령 Rating 전체 All

〈Un:truth〉는 퍼포먼스의 과정과 기록들을 볼 수 있으며,
소극장이라는 공간에서의 전시로 새로운 미적 경험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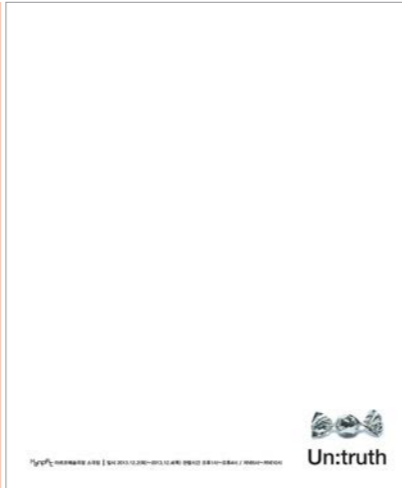
| 기획의도 |

관객이 참여할 수록 작품의 모습은 변형되며 사라져가지만 다음날이면 미술관은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복구되며 이를 반복한다. 미술관을 무대로 관계자들을 제작진으로, 관객을 배우로 세워 작품을 통해 '영원한 변형'이라는 결과를 얻는다.

미술관이라는 제도적 장치에 갇혀버린 공간에 전시된 자신의 작품에 연극적 요소를 사용함으로써 더 자유로운 변형을 시도한다. 〈Un:truth〉는 당시에 일어났던 퍼포먼스의 기록을 볼 수 있으며, 소극장이라는 공간에서의 전시로서 새로운 미적 경험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2년 8월 25일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의 회고전에 전시되었던 작품 중에는 관객의 참여로 완성이 되는 작품들이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작품은 '무제(플라시보) Untitled [Placebo]'이다. 전시장에 500kg에 육박한 사랑을 직사각으로 넓은 공간에 전시해 놓았으며 관객들은 그것을 가져가거나 먹을 수 있다. 작품은 관객과 접촉하는 동시에 관객의 결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는 작가가 관객에게 작품에 대한 자율적 소유권을 부여한 것이다. 전시 중에 일어났던 사건은 바로 '무제(플라시보)에 관련된 것이다. 지난해 8월 여름, 관객들은 전시되어 있던 500kg의 사랑을 전부 가지고나와 전시장 바닥을 전부 쓸어버렸다.



2013 신인데뷔전

2013 Rookie debut

2013.12.7^{Sat} ~ 2013.12.8^{Sun} 6pm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Arko Arts Theater Small Hall

주최 (사)한국현대무용협회
주관 신인데뷔전 조직위원회

문의 Contact (사)한국현대무용협회 02-765-5352
예매 Book 한국공연예술센터 www.hanpac.or.kr
02-3668-0007

관람료 Price 20,000
관람연령 Rating 만 7세 이상 7 and over
공연시간 Duration 60분 60mins

풍부한 감성과 창의성으로 빛나는 젊은 무용가들이 만들어 내는 움직임의 열정!

| 작품설명 |

〈2013 신인데뷔전〉은 미래 한국 현대무용계를 주도할 차세대 무용가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안무기회가 많지 않은 젊은 무용가들에게 무대공연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성 있고 유능한 안무가로의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줄 것이다.

〈집〉 이강석 〈독〉 안유리, 황선임 〈관계〉 한신애 〈無계〉 김희정
〈pure〉 김환희 〈쉬운 용서〉 최예나 〈amor fati〉 이현주
〈주관적 관계〉 정민아 〈개인의 순간〉 김예진 〈흔적을 남기다〉 하다운
〈Talking Point〉 김혜진 〈난간 위의 고양이〉 이소라, 홍경아 〈벼랑 끝 꽃을 꺾다〉 류지나 & 이아현
〈I'll do it my own way...〉 이운경 〈McCoy - 나는 너를 보고 있다〉 홍승현

| 단체소개 |

(사)한국현대무용협회 Contemporary Dance Association of Korea

(사)한국현대무용협회는 한국현대무용의 예술로서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1980년부터 무용 공연 예술계의 선구자적 역할을 도모하고자 연구·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제교류와 한국현대무용의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단체이다.



연극 레미제라블

Les Miserables

2013.12.4^{Wed} ~ 2013.12.8^{Sun}
Weekdays 3pm, 7:30pm
Sat 3pm, 7pm / Sun 2pm, 6pm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Arko Arts Theater Main Hall

주최 50대 연기자 그룹

주관 서울연극협회, (주)드림인터네셔널

극본 빅토르 위고

연출 박장렬

예술감독 윤여성

출연 오현경, 박웅, 정상철, 문영수, 박상규 외

문의 Contact 50대 연기자 그룹 02-391-5449

예매 Book 한국공연예술센터 www.hanpac.or.kr
02-3668-0007

관람료 Price R 70,000/ S 50,000/ A 30,000

관람연령 Rating 7세 이상 8 and over

공연시간 Duration 160분 160mins
(intermission 10mins)

실력파 '50대 연기자 그룹' 멤버들이 펼치는 감동의 무대에서 '장발장'의 감동을 전한다.

| 작품설명 |

실력파 연기자들과 '50대 연기자 그룹' 멤버들이 완성도 높은 연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한국연극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소설 <레미제라블>을 선택했다. 2011년부터 연극으로 올려진 소설 <레미제라블>은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연극으로 살아날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 한 인간의 희로애락을 보여주며 삶의 진정성을 일깨워 주는 명작소설에 버금가는 작품이 될 것이다.

| 시놉시스 |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의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

출소 후, 우연히 다녔던 성당의 미리엘주교의 도움으로 장발장은 전과자가 아닌 시민들의 이상인 마들렌시장으로 다시 태어난다. 장발장은 죽음을 눈앞에 둔 판틴과 마주치고, 그녀는 딸 코제트를 장발장에게 부탁한다. 그러나 코제트를 만나기도 전에 경감 자베르는 장발장의 과거를 알아차리고, 다시 체포된 장발장은 코제트를 찾아 탈옥을 감행하는데...

혁명의 물결로 술렁이던 프랑스, 이 혼돈 속에서 장발장과 자베르, 두 사람의 운명적인 행보는 계속된다.

| 단체소개 |

50대 연기자 그룹 Group of Actors of Fifty

현존하는 50대 연기자들이 한국연극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50대 연기자 그룹'이라는 타이틀로 탄생하였다. 그들이 지닌 연기력 재능과 경험을 후배 연기자들과 함께 호흡하여 한국연극의 미래를 이끄는 원동력을 확대시키며 한국연극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 남자의 프로포즈

Propose for my love

2013.12.11^{Wed} ~ 2014.1.5^{Sun}
Weekdays 8pm
Sat 4pm, 7pm / Sun 4pm
월 쉽 (Except Mon)

대학로예술극장 3관

Daehangno Arts Theater 3 Hall

주최 극단 해반드르

작·연출 유경민

출연 김영우, 고정민, 김자영,곽수정, 정성욱,
홍지혜, 김경수, 안훈, 이영훈, 장혜미

문의 Contact 아티스트그룹 02-3436-7777

예매 Book 한국공연예술센터 www.hanpac.or.kr
02-3668-0007

관람료 Price 30,000

관람연령 Rating 8세 이상 9 and over

공연시간 Duration 90분 90mins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젊은이들에게 사랑은 최고의 버팀목이다!
배꼽 빠지는 웃음과 진한 감동의 눈물이 빚어낸 사랑의 하모니!

| 작품설명 |

연극 <그 남자의 프로포즈>는 결혼을 갈망하고 고민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를 위해 기획된 맞춤형 작품이다. 이 작품은 한 청년이 결혼을 결심하고 고백하는 험난한 과정을 통해 이 시대 젊은이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힘들어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주인공이 사랑 앞에 닥친 시련을 이겨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사랑이라는 것이 그 어떤 이유로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말한다. 이 작품은 젊은이들에게 통쾌한 웃음, 벅찬 감동으로 사랑에 대한 희망을 안겨줄 것이다.

| 시놉시스 |

청년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노용은 4년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결심한다. 유명한 라디오 방송의 인기 코너인 '그 남자의 프로포즈'의 당첨이 되면서 프로포즈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어간다. 그러나 프로포즈 당일 날 주인공은 수술한 고양이를 돌봐야 하는 아르바이트로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그 남자의 프로포즈'를 진행하려 한다. 그러나 프로포즈 장소에 뜻하지 않은 손님들이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내보내려는 주인공과 갈등이 생기고 만다.

| 단체소개 |

극단 해반드르 Haebandre Theatre

'해반드르'란 순수 우리말로써 "해맑고 반듯하다"는 뜻으로 이치에 맞고 반듯한 연극을 만들려는 극단의 모토이기도 하다. 2000년에 공연기획 해반드르를 설립하고 2001년에 극단 해반드르의 창당과 함께 <피터의 고백>으로 창단 공연을 올렸다. 해반드르는 활발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모티프 까두, 2013

Motif CcadoO, 2013

2013.12.5^{Thu} ~ 2013.12.7^{Sat}
Weekdays 8pm / Sat 4pm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Daehangno Arts Theater Small Hall

주최 댄스씨어터 까두
주관 컬처버스
예술감독 박호빈
조명 공연화
무대 박지훈

문의 Contact 컬처버스 070-8276-0917
예매 Book 한국공연예술센터 www.hanpac.or.kr
02-3668-0007
관람료 Price 20,000
관람연령 Rating 만 5세 이상 5 and over
공연시간 Duration 70분 70mins
(intermission 5mins)

'까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Ccadoo', '加頭'의 눈으로 '까두'를 재해석 하다.

| 기획의도 |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시간을 함께한 아티스트들이 한데 모여 <Motif CcadoO, 2013>으로 기념하려 한다. 이번 <Motif CcadoO, 2013>은 '댄스씨어터 까두'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엿볼 수 있는 자리를 넘어서 과거를 마무리하는 끝점이자, 미래를 제시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 시놉시스 |

Motif 1. <화이트>

원작 <돌아온 퍼즐 속의 기억>에서 이야기를 끌고 나갔던 여자의 시점(時點)을 바꿔 기억이 왜곡되어지는 순간들을 감각적이고 섬세하게 풀어내려 한다. 안무·출연 주선희, 김호진, 한류리, 최원석

Motif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원작 <천적중후군>을 완전히 해체한 후, 천적의 관점을 중심으로 상생과 공존, 천적이라는 자연의 이치를 자신만의 시각을 입혀 재해석했다. 안무 박소영 출연 금배설, 성한철, 이영훈, 박소영

Motif 3. <까두의 빛과 시간과 공간 - Alaska04052011>

지난 10년간 무대 위에 올려진 작품 속 무용수들의 움직임, 빛과 소리를 이진수로 데이터화 한다. 그 데이터를 전혀 새로운 빛과 소리의 무브먼트로 재탄생시키려 한다. 연출 최종범(미디어아트)

| 단체소개 |

댄스씨어터 까두 Dance Theater CCADOO

'댄스씨어터 까두'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아우르는 독립예술단체로 다양한 소재와 기발한 상상력으로 호평을 들으며 다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독립예술 단체이다.



마흔

Forty

2013.12.12^{Thu} ~ 2013.12.29^{Sun}
Weekdays 8pm / Sat 3pm, 7pm
Sun 3pm / 12.25^{Wed} 3pm, 7pm
월 쉽 (Except Mon)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Arko Arts Theater Small Hall

주최 극단 청국장
후원 서울문화재단
작·연출 김한길
기획 최효정
음악 이동호
의상 양화령
출연 지우석, 임은희, 이동용, 유지수, 오주환,
박기만, 조유진, 김수현

문의 Contact 02-765-8817
예매 Book 한국공연예술센터 www.hanpac.or.kr
02-3668-0007
관람료 Price 25,000
관람연령 Rating 7세 이상 8 and over
공연시간 Duration 100분 100mins

<마흔>은 이 시대의 중년을 준비하는 90학번 세대들의 그때와 지금의 모습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단면을 표현한다.

| 기획의도 |

소위 IMF세대와 X세대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사회를 청년으로 보냈던 90년대 학번의 세대는 2013년 중년의 나이가 되어있다.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을까. <마흔>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또 가족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솔직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연극이다. 현대 도시민들에게 여유란 여유롭지 않다. 마흔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유부남의 솔직한 자기 고백과 성장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희미한 기억의 흔적과 조우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 시놉시스 |

찬영과 재일교포 3세인 지수는 소미라는 초등학교 딸을 둔 부부이다. 지수는 일본에 있는 이모의 칠순잔치를 위해 일본으로 가고 딸 소미마저 시골집으로 내려가 집을 비우게 되자 찬영은 40대 가장이란 굴레에서 벗어난 즐거운 기분과 자유를 느끼게 된다. 찬영은 디자인사업 파트너이자 대학 선배인 동원과 소심한 일탈을 위한 술자리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다 대학시절 짝사랑 했던 유정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 단체소개 |

극단 청국장 Cheonggukjang

극단 청국장은 2005년 창단 이래 <사건발생 일구팔공>, <귀로>, <임대아파트>, <장군슈퍼> 등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관객들과 가장 잘 소통하는 젊은 극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 창작산실 우수작품전 현대무용

2013.12.17^{Tue}, 19^{Thu}, 21^{Sat}
Weekdays 8pm / Sat 5pm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Daehangno Arts Theater Main Hall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립현대무용단
참가단체 리케이댄스, 콜렉티브 에이, 예효승

창작산실 지원사업은 국민의 창작예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단체의 창작 활동을 지원 및 올바른 창작방향을 제시하고자 시행되는 지원 사업이다.

문의 Contact 국립현대무용단 02-3472-1404
예매 Book 한국공연예술센터 www.hanpac.or.kr
02-3668-0007
관람료 Price R 20,000 / S 15,000
패키지 티켓 R 40,000 / S 30,000
※ 패키지 티켓은 우수작품 3편 관람이 가능하며, 중복할인 안됨.
관람연령 Rating 7세 이상 8 and over

| **행,간 SPACE** | 12.17^{Tue} 8pm 공연시간 Duration 60분 60mins

단체 리케이댄스 안무 이경은 출연 권령은, 윤가연, 명지혜, 이상훈, 강요섭, 전운중

사이와 사이, 그 깊은 틈에서 느낀 몸의 의미들을 길어 올린다! 인간을 향한 인간의 수많은 행동들, 그 사이에 감춰진 다양한 의미들을 회화적이면서도 역동적으로 그려낸다. 그 과정은 몸의 본성, 춤의 본질과 만나고자하는 뜨겁고 흥겨운 갈망이 될 것이다.

| **Fake Diamond** | 12.19^{Thu} 8pm 공연시간 Duration 60분 60mins

단체 콜렉티브 에이 안무 차진엽 출연 김성현, 김윤아, 김지옥, 박상미, 유수경, 조형준, 차진엽, 한경남

마음속 신데렐라를 죽여라 인간이 인간으로서 표출될 때에만 거기에 순수함과 사랑이 존재하는 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는 순간 거기에는 환멸만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 환멸의 숲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결국은 허물 벗은 인간들의 나약한 본 모습만 남게 된다.

| **I'm so tired** | 12.21^{Sat} 5pm 공연시간 Duration 60분 60min

단체 예효승 안무 예효승 출연 김보람, 이은경, 이채원, 예효승, 정주령, 장경민, 손성호
음악 성기완, 허준혁

세상 어디에도 파라다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 무대에 비현실의 공간과 현실의 공간으로 두 공간을 연출할 것이다. 5명의 무용수 각자가 자신만의 독특함을 보여줄 수 있는 각기 다른 스타일의 움직임을 하며 특히 이번작품의 핵심은 '반복'에 있다. 여러 실험적인 요소들과 즉흥을 융합하여 각기 다른 '몸 언어'로 표현할 것이다.



행,간 SPACE



Fake Diamond



I'm so tired

2013 창작산실 우수작품전 발레

2013.12.13^{Fri} ~ 2013.12.27^{Fri}
Weekdays 8pm
Sat 6pm / Sun 4pm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Arko Arts Theater Main Hall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재)국립발레단
참가단체 조운라발레단, 이원국발레단,
문영철발레보에마, LEE발레단

창작산실 지원사업은 국민의 창작예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단체의 창작 활동을 지원 및 올바른 창작방향을 제시하고자 시행되는 지원 사업이다.

문의 Contact 조운라발레단 02-2263-4680
이원국발레단 070-4116-3357
문영철발레보에마 02-2220-1333
LEE발레단 070-8879-4563
예매 Book 한국공연예술센터 www.hanpac.or.kr
02-3668-0007
관람료 Price 20,000

| **크리스마스 캐롤 스크루지 Christmas Carol Scrooge** | 12.13^{Fri} 8pm, 12.14^{Sat} 6pm

단체 조운라발레단 안무 조운라 출연 김주원, 이원철, 이광석, 최정민, 문신하 외
공연시간 Duration 60분 60mins 관람연령 Rating 5세 이상 6 and over
고전의 새로운 탄생, 크리스마스 캐롤 <스크루지>가 창작발레로 다시 태어난다. 이 무대는 크리스마스 본연의 의미인 나누고 베풀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발레대본에 잘 어울리는 현대적인 각색으로 대중들에게 또 다른 기대와 재미, 예술적 조합으로 대중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작품이 될 것이다.

| **맥베드(스코틀랜드의 꽃) Macbeth(The Flower of Scotland)** | 12.17^{Tue} 8pm, 12.18^{Wed} 8pm

단체 이원국발레단 안무 이원국 출연 이원국, 이영진, 최예원, 알렉산드르, 미키 시노하라 외
공연시간 Duration 50분 50mins 관람연령 Rating 만 7세 이상 7 and over
절망적이고 암울한 시대를 극복하고 신세계로 나아가는 희망과 사랑의 하모니, 시대를 살아가며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거쳐야만 하는 현대인들에게 긍정적인 소망과 희망을 전달하고 소통해 보고자 하는 의도를 안무에 반영했다.

| **파랑새 Bluebird** | 12.21^{Sat} 6pm, 12.22^{Sun} 4pm

단체 문영철발레보에마 안무 문영철 출연 이주희, 조원석, 염정우, 박지은, 정지원, 장은정, 김태연 외
공연시간 Duration 60분 60mins 관람연령 Rating 7세 이상 8 and over
꿈과 희망을 주는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창작발레의 아름다운 여행. 바쁘게 살아가지만 행복은 쉽게 얻어지지 않고, 사람들은 지치고 절망하고 있다. 우리는 작은 것들이 주는 기쁨을 잊고 여유 없는 삶을 살아간다. 현대인들이 행복을 쫓아 노력하고 고뇌하지만 결국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

| **무상 VANITY** | 12.26^{Thu} 8pm, 12.27^{Fri} 8pm

단체 LEE발레단 안무 이상만 출연 정설웅, 임지영, 홍영기, 지다영, 윤지연 외
공연시간 Duration 60분 60mins 관람연령 Rating 만 7세 이상 7 and over
'인생 무상'이라는 이 형이상학의 철학을 아름다운 발레로 풀어낸다. 한 승려가 관음보살의 길을 떠나 속세의 삶이 시작되지만 타락해 가고 있는 인간의 삶이 물거품 같다는 허무함을 느끼고 관음보살의 부름을 받아 불도의 길로 돌아간다. <무상>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조신의 꿈을 모티브로 한 발레작품이다.



크리스마스 캐롤 스크루지



맥베드



파랑새



무상

이희문 오더메이드 레퍼토리 '雜'

Lee Heemoon Order-made
Repertory 'JAB'

2013.12.19^{Thu} ~ 2013.12.20^{Fri}
8pm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Daehangno Arts Theater Small Hall

주최·주관 이희문컴퍼니
연출 안은미
음악감독 장영규, 이태원
출연 이희문, 신승태, 조원석, 음악동인고물
특별출연 정은혜, 이승희, 안대천, 윤현호, 앵비,
안은미컴퍼니

문의 Contact 이희문컴퍼니 02-2058-1884
예매 Book 한국공연예술센터 www.hanpac.or.kr
02-3668-0007
관람료 Price R 30,000 / S 20,000
관람연령 Rating 19세 이상 20 and over
공연시간 Duration 90분 90mins

경기소리 중 '잡가'에 이희문의 아이덴티티를 더한 프로젝트!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기소리를 만나는 무대

작품설명

《雜》은 경기소리 중에서도 예전부터 전문소리꾼에 의해서만 불려져왔던 '잡가'를 소재로 '이희문'의 아이덴티티가 더해지면서 잡스러운 무대를 만들려고 한다. 《雜》은 몇 년간의 이희문컴퍼니 프로젝트를 통해 풍부해진 표현력과 그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작품으로 그간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경기소리의 또 다른 새로움을 구축한다. 이희문에게 딱 맞는 경기소리를 오더메이드하여 많은 레퍼토리로 살아있는 소리꾼으로 거듭나려는 도전의 실험정신을 담았다.

기획의도

《雜》은 잡가의 잡스러운 음악구조가 만들어낸 감성과 사회 속에서의 관계나 대립에 대한 강한 통찰력을 가진 아티스트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요즘같은 시대에 아티스트가 하고자 하는 전통예술이란 무엇인지, '뽕구름 잡다'라는 허황되지만 그 자체가 가장 절실한 목적이 되는, 무엇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 불허한 세상에서 수많은 외부 영향력에 타협하고 근본적인 것들을 부인한 채, 나란 존재가 본질적 어떤 형태인지를 찾기 위해 잡스러운 노래를 가지고 잡다한 짓을 행하여 보려는 실험의 과정을 시작한다.

단체소개

이희문컴퍼니 Lee Heemoon Company
2008년 《희문》이라는 처녀작을 시작으로 해마다 다양한 경기소리프로젝트로 개인 공연을 만들어오면서 2009년도부터 '이희문컴퍼니'를 만들어 본인의 프로젝트는 물론 전통을 모티브로 '나비', '속씨스터즈', '놈놈'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기획하고 연출하여 경기소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나가고 있는 단체이다.



소리에 이르다 2013

Coming into the sound 2013

2013.12.22^{Sun} 6pm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Daehangno Arts Theater Small Hall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도
주관 경기문화재단, STUDIO ZAAK
연출 이대일
음향감독 쇼지 와타루

문의 Contact 한국공연예술센터 02-3668-0007
예매 Book 한국공연예술센터 www.hanpac.or.kr
02-3668-0007
관람료 Price 무료 Admission Free
관람연령 Rating 15세 이상 16 and over
공연시간 Duration 90분 90mins

공간과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소리로 담아낸다. 시각장애인들이 현장의 소리를 무대로 옮긴다.

작품설명

《소리에 이르다 2013》은 8, 9월에 경기도와 서울의 특정 지역들을 방문하여 실시된 현장녹음,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라이브 연주로 구성되어있다. 문래동 철공장, 청량리 시장, 시화공단, 서울역 등의 지역에서 공간과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담은 사운드를 얻어내고 그것을 무대에 재구성한다. 여기에 시각장애인들과의 협업이 더해지는데 지역 현장 녹음 때 동행했던 시각장애인들이 무대 위에서 그 장소와 연관된 방식으로 라이브 연주를 한다. 별도의 무대장치는 없으며, 매우 낮은 조도의 조명만 사용된다. 또한 공연 중 현장에서 가져온, 또는 현장성을 가미하여 제작된 악기를 사용하여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할 것이다.

연출소개

이대일 Lee Daeil

1992년 서울대 미대 조소과를 졸업하였으며 한국, 일본, 유럽 등에서 조형예술가, 기획자, 사운드 아티스트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 특정지역에서의 현장녹음

인형발레 NO.1 백조의 호수

Puppet Ballet - Swan lake

2013.12.24^{Tue} ~ 2013.12.26^{Thu}
Weekdays 2pm, 5pm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Daehangno Arts Theater Main Hall

주최 (주)알앤디웍스
주관 (주)클럽서비스
연출 정태영
안무 차진업

문의 Contact 1577-3363
예매 Book 한국공연예술센터 www.hanpac.or.kr
02-3668-0007, 인터파크 1544-1555,
예스24 1544-6399, 옥션 1566-1369
관람료 Price R 55,000 / S 35,000
관람연령 Rating 만 2세 이상 2 and over
공연시간 Duration 70분 70mins
(intermission 10mins)

국내 최초의 인형발레! 올 겨울,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명작 <백조의 호수>를
인형이 살아 움직이는 동화같은 환상의 무대로 만나다.

| 작품설명 |

인형발레 <백조의 호수>는 아이들에게 친근한 동물 캐릭터로 연기하는 국내 최초의 인형발레다. 귀여운
곰인형과 점핑이 돋보이는 개구리, 오데트(백조)와 오딜(청둥오리)의 대결장면을 비롯해 전 출연진들이
함께 펼치는 <백조의 호수>의 대표군무는 관객을 눈을 사로잡는다.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캐릭터들이 실제 인형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동화적인 표현과 동시에 발레연기의 아름
다움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었다. 인형발레 <백조의 호수>는 부담없는 가격으로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발레 안무에는 전문성을 더해 환상의 무대를 선사할 것이다.

| 시놉시스 |

곰 인형 '두두'와 소녀가 숲 속 신비한 마법의 세계로 함께 떠난다. 소녀는 마법사(멧돼지)의 마법에 걸려
백조 오데트로 변하게 된다. 왕자의 진실한 사랑 고백이 있어야만 마법이 풀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
두는 왕자(여우)를 오데트에게 안내하고 둘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오데트는 마법사의 방해
를 받고 그 사이 오딜(청둥오리)이 오데트로 변장해서 왕자의 사랑의 맹세를 받는다. 화가 난 오딜은 오
데트에게 춤 대결을 신청하지만 오데트가 이긴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마법사를 물리치고 모두가 기쁨
의 노래를 부른다.

| 단체소개 |

(주) 알앤디웍스 R&D WORKS

알앤디웍스는 뮤지컬 제작에 종사해 온 PD들이 모여서 만든 공연 전문 제작사이다. 공연 제작 대행 및 유
통, 창작 뮤지컬 개발 및 매니지먼트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다양한 창작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뮤
지컬, 발레, 가족 공연 등을 개발하고 있다.



금강산려관

The Hotel Kumkang

2013.12.24^{Tue} ~ 2013.12.29^{Sun}
Weekdays 8pm / Sat 3pm, 6pm
Sun 3pm / 12.25^{Wed} 3pm, 6pm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Daehangno Arts Theater Small Hall

주최 극단 목수
원작 알렉산드르 밤벨로프
각색 박윤희
연출 이돈용
출연 강경덕, 장설하, 김현태, 이경훈, 신우민,
이지혜

문의 Contact 070-7562-9980
예매 Book 한국공연예술센터 www.hanpac.or.kr
02-3668-0007
관람료 Price 25,000
관람연령 Rating 12세 이상 13 and over
공연시간 Duration 90분 90mins

남한이 생각하는 북한은? 북조선이 생각하는 남조선은?
지금 그들의 상상과 오해가 불러일으킨 엄청난 결과물이 다가오고 있다!

| 작품설명 |

연극 <금강산려관>은 러시아 극작가 알렉산드르 밤벨로프의 단막극 <정판공이아기>를 각색한 작품으
로,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어마어마한 갈등이 마치 남과 북의 모습을 닮아 있기에 금강산관광을 배
경으로 하여 우리나라 정서에 맞도록 각색한 작품이다.

| 시놉시스 |

남한의 금강산 관광길이 다시 열리고 덕분에 새 직업이 생긴 옥란은 어느 날과 다름없이 일을 마치고 객실
로 돌아와 하루를 마감한다. 그때, 다급하게 남조선 남자, 봉수가 축구경기를 보고 있던 중에 객실 TV가
고장이 났다며 도움을 청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잠시 한 방에 함께 머문다. 잠시 후, 객실지배인 류진이
규정에 어긋난다며 봉수를 쫓아낸다. 그리고 봉수가 그 방을 나가며, 류진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진다. 그
말은 류진의 머릿속에서 점차 무시무시한 의미로 해석되고, 류진은 점점 신변에 위험을 느껴 상황을 빠져
나갈 궁리를 하게 되는데...

| 단체소개 |

극단 목수 MOKSU

극단 목수는 2004년에 창단되었으며 대표작품으로는 <진지한농담>, <사술>, <꽃님이발관> 등이 있다. 극단
목수는 순수예술로서의 연극 보존 및 창작에 힘을 쏟아 수준 높은 창작극을 발굴하며 이를 통해 공연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전통문화를 연극적 무대요소로 확대함으로써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사자(死者)의 서(書) II

Event Horizon

The Book of the Dead II
Event Horizon2013.12.28^{Sat} ~ 2013.12.29^{Sun}
Sat 6pm / Sun 4pm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Daehangno Arts Theater Main Hall

주최 황재섭무용단

주관 공연기획 MCT

후원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본·안무 황재섭

조안무 조경아, 박정수

조명디자인 이상봉

음악 김철환

영상디자인 정호영

출연 황재섭, 박이표, 최태현, 김주빈, 김형진,
박민영, 김민지, 제갈숙영, 배아란

문의 Contact 공연기획 MCT 02-2263-4680

예매 Book 한국공연예술센터 www.hanpac.or.kr
02-3668-0007

관람료 Price R 30,000 / S 20,000

관람연령 Rating 7세 이상 8 and over

공연시간 Duration 60분 60mins

전통무대와 창작무대를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의 안무가 황재섭의 2013년 신작. 2013 황재섭무용단 우수레퍼토리 사자(死者)의 서(書)II <Event HORIZON>는 삶과 죽음을 새롭게 해석한다.

| 작품설명 |

이 작품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삶은 전생과 연결되어 내세, 환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일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전생을 논하고 지난 삶을 이야기하며 지금에 비추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 가려 하는 요즘, 종교적인 내세관에 익숙하게 살아온 우리에게 '진정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또 이번 작품이 던지는 메시지는 '지금의 삶을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 시놉시스 |

Prologue. 육중한 문 앞에 나는 서 있다.

1장. 지옥. 지옥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다.

2장. 현재. 하루일과를 시작하는 나...

3장. 욕망. 쉴 새 없이 서로를 잡아당기며 계단을 밟고 올라가고 있다.

4장. 죽음. 죽음 뒤에 오는 죽음.

5장. 마른 늪서 고기 낚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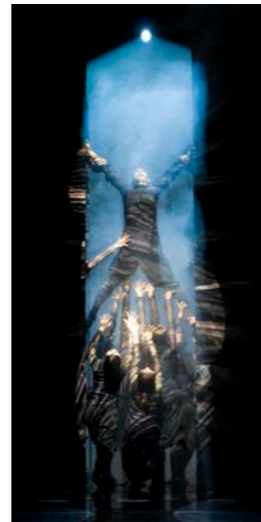
6장. 지옥으로부터 너를 구하라. (Liberate tutemae ex inferis.)

Epilogue. 나는 주섬주섬 나를 챙겨 일어난다.

| 단체소개 |

황재섭무용단 Hwang Jaeseop Dance Company

황재섭은 과장되지 않는 절제와 고도의 집중력을 바탕으로 한 치밀함이 돋보이는 안무 스타일과 분명한 컨셉트와 심미적 즐거움으로 실험적인 작품세계를 열어나고 있는 안무가이다. 국립무용단 주역무용수 출신인 황재섭은 국수호, 김말애, 정재만 등 무용계의 큰 선생님들께 다양한 우리 춤을 전수받았으며 전통과 창작의 접목으로 항상 연구하며 새로운 춤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무용가이다.



2013 달굿

2013 DAL GOOD

2013.12.30^{Mon} 5pm, 8pm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Arko Arts Theater Main Hall

주최 윤미라무용단

연출·안무 윤미라

대본 장승헌

출연 이흥재, 권민정, 김고운, 강미선, 봉정민 외

문의 Contact 02-961-0395

예매 Book 한국공연예술센터 www.hanpac.or.kr
02-3668-0007

관람료 Price R 30,000 / S 20,000

관람연령 Rating 7세 이상 8 and over

공연시간 Duration 80분 80mins

한국창작춤의 공연양식과 형식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춤 레퍼토리

| 기획의도 |

<달굿>은 21세기, 한국 창작춤의 공연양식과 형식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 예술성과 대중성을 절묘하게 합성시켜 해외무대 진출작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초연무대의 급박한 작품 준비시간과 넉넉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무대에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아쉬웠던 장면들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하였다. 20분 정도 길이의 소품작품까지 2013 <달굿>을 통해 탄생시켜 보고자 한다.

| 작품설명 |

막이 오르면, 마치 켜켜이 쌓아 놓은 시간의 돌담처럼 머나 먼 시원의 공간을 지켜 온 신화 속 어머니의 모습들이 경건하고도 엄숙한 제의의 분위기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스스로 오랜 시간을 지나며 퇴적한 강의 삼각주처럼 나뉠의 역사 속 긴 여명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처연하게 설명하려는 듯... 이윽고 멀리서 한 줄기 달빛이 스며 들어 온다. 에르테미스의 초상을 닮은 천상 우리네 정겨운 어머니의 얼굴이다.

| 단체소개 |

윤미라무용단 MIRA Dance Company

윤미라 교수를 중심으로 정단원 30명, 연수단원 40여명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통춤 레퍼토리 외 창작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윤미라 무용단의 활동의 바탕에는 전통춤이라는 토대가 있으며, 전통춤을 이 시대의 살아있는 춤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을 통해 전통의 현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창작 작품 발표를 통해 한국무용계의 새로운 창작 기법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2013 봄 작가, 겨울 무대

〈장롱속의 바다〉

작가 현찬양

연출 하일호

2013.10.31~11.2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2013 봄 작가, 겨울 무대

〈미사여구없이〉

작가 허진원

연출 민새롬

2013.11.10~11.12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새로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최창근 극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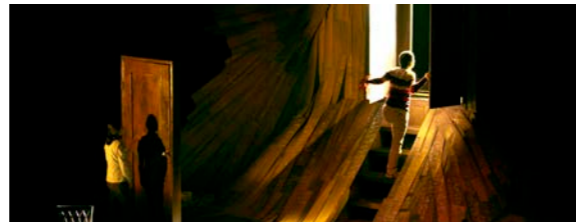
〈장롱 속의 바다〉

원제가 〈장롱속의 연인〉이었던 〈장롱속의 바다〉는 일반적 인 연극의 구조와는 조금은 다른 양식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서사가 탄탄한 희곡이라기보다는 상징성이 강한 이미지로 조각보를 잇대듯 열개를 엮어가고 있어서 어찌 보면 시나리오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이미지의 중심에 세 명의 주요인물인 재영(이주원 분)과 흥단(김보경 분), 김사장(전정하 분)의 독백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이채롭지요. 그래서 이 작품은 독백의 향연 같기도 합니다. 길고 긴 독백에 의지해서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작가가 인간의 내면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모놀로 그란 고독한 사람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장 인간적인 육성이니까요.

놀라운 것은 작가의 시선이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주류에 속하는 아웃사이드들에게 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연한 사고로 아버지를 죽이고 감옥에서 십 년간 복역하고 나와 하키코모리가 된 재영도, 탈북자 출신으로 정 붙일 곳 없는 남한에서 입주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흥단도, 심지어 남편에게 버림 받고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김사장도 모두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무서운 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도 고립시킨다는 점이지요. 그러하기에 장롱 문을 열고 들어간 흥단이 그곳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재영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공연의 결말 부분에서 비로소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의 꽃이 피니다. 사랑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 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니까요. 이 작품은 잔혹한 삶의 톱니바퀴에 끼여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막다른 궁지에 몰린 현대인의 실존을 날카롭게 해부한 피터 쉐퍼의 희곡 〈에쿠우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신 혹은 숙명의 굴레, 냉

혹한 현실과 물질문명으로 대변되는 말의 눈을 찢러 인간으로서의 존재확인을 위한 반항을 시도했던 소년 알런처럼 〈장롱속의 바다〉의 인물들도 삶의 의미를 찾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인물은 어떤 계층이나 성격을 대표하는 인물로 무대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소외'와 '고독' 그 자체를 가리키는 기호로 부각되지요.

연출 하일호는 알몸이 드러나는 무대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작가가 지문에서 지시한대로 최소한의 구획만 그은 채 부엌의 긴 식탁과 재영 방의 장롱을 제외하고 모든 소품들을 단순화시켰습니다. 텅 빈 무대를 채우는 것은 장과 장 사이를 연결하는 여운이 긴 브리지 음악과 깊은 바다를 유영하는 물고기를 표현했던 코러스 역(김지민, 김범린 분)을 맡은 배우들의 부드럽고 유연한 몸짓, 그리고 흥단모(전소현 분)와 원장 겸 형사(양승한 분)를 포함한 각 인물들의 배역을 큰 무리 없이 훌륭하게 소화했던 배우들의 진심이 깃든 육성이었는데요. 이 작품은 개미와 식탁, 장롱으로 연결되는 상징적인 장치들을 적절하게 배치해 극의 흐름을 끌어올렸고 전형적인 희곡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쳐보였다는 점에서 다층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품고 있는 미완의 역작으로 주목받을 만합니다. 등단작인 〈401호 윤정이네〉에서도 말과 말 사이에 흐르는 적막한 기운과 침묵의 힘으로 인물의 심리를 미묘하게 잡아냈던 현찬양은 가까운 장래에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과 매력을 지닌 작가로 한국연극의 한 부분을 든든하게 책임져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미사여구 없이〉

인간의 행위 중에 사랑처럼 이해하기 어렵고 지극히 변덕스러운, 또 한 번 빠져들면 물불 못 가리고 정신없이 빠져드는 기이한 현상이 있을까요? 너무나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게다가 모순으로 가득 찬 사랑이라는 이름의 괴물에 그림에도 불구하고 다들 목을 매고 목숨을 거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미사여구 없이〉는 연인들 사이에 흔히 존재하는 밀당(밀고 당기기)의 최고치를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유치할 수도 있는 서로가 서로를 떠 보고 탐색하는 과정은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사랑의 탄생을 예감하고 있기에 흥미진진하지요. 10년 전 어느 비오는 밤 작가지망생 동구(김태현 분)가 여자친구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서현(신정원 분)과 충동적인 섹스를 나누는 후에 고백한 "사랑해!"라는 말은 10년이 지나 월간지 편집장이 되어 동구의 눈앞에 나타난 서현의 입을 통해 부메랑처럼 되돌아옵니다. 저 유명한 페르시아의 설화집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야기에서 알리바바가 보물이 숨겨진 문 앞에 서서 '열려라, 참깨!'라는 주문을 외 때 마법처럼 나타나는 환상의 순간처럼 '사랑해'라는 주문과도 같은 주문은 두 사람 사이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의 포로로 단단히 묶어버립니다.

그동안 서로를 갉아먹었던 상처가 되는 말들과 그로 인해 생겼던 앙금은 기적처럼 치유되고 기억은 꽃향기가 폴폴 날리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새롭게 복원되지요. 이때 사랑의 고전적인 속성 중 하나,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행위는 시차를 두고 잠복했다가도 어느 순간이 오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것, 사랑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중국의 어느 유명한 시인은 '술은 입으로 오고 사랑은 눈으로 온다'고 했지만 눈으로 온 사랑은 귀와 입을 거쳐 가슴과 배를 맞추고 난 후에야 비로소 끝이 납니다. 연인들이 사랑에 빠지면 왜 몸을 섞고 싶어질까요? '섹스'라는 행위는 지극히 동물적이고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조금은 부끄럽고 창피할 수도 있는 데 말이지요. 결국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옷을 벗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뜻이



겠지요. 그리하여 이제 서로의 빛은 몸은 두 사람을 연결하는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행위인 섹스를 하는 동안은 그래서 별다른 말이 필요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없을 때 말은 등장하지요. 온갖 미사여구와 화려한 수식이 춤을 추고 알맹이 없는 왜곡된 말이 날아다닙니다.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의 본질과 멀어진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작가 허진원은 자유자재로 말을 부리는 솜씨가 일품이지요. 등단작인 〈땃〉에서도 그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언어의 힘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나갔습니다. 민새롬 연출은 정방형의 투명 입체를 세워 적절한 공간분할을 통해 안과 밖, 인물의 내면과 외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줬습니다. 장면전환을 맡은 두 고양이는 공연의 시작과 중간, 끝에서 어느 순간 무대 속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기를 반복하며 작품에 묘한 활기와 웃음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랑의 외피 속에 감춰진 본질을 시종일관 유쾌한 재치와 맛깔스러운 유머로 대담하게 풀어낸 우리 시대의 연애담 〈미사여구 없이〉는 레바논 출신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고전적인 경구를 다시 한 번 떠올리게 합니다. "사랑이 그대에게 손짓하거든 그를 따르라, 비록 깃 속에 숨겨진 칼이 그대를 상처 나게 하더라도" ㉠

2013 봄 작가, 겨울 무대
〈뒤주박죽〉
작가 최준호
연출 부새롬
2013.11.5~11.7
대학교예술극장 소극장

2013 봄 작가, 겨울 무대
〈택배 왔어요〉
작가 이미경
연출 장우재
2013.11.15~11.17
대학교예술극장 소극장

역사적 사실 바탕으로 오늘의 이야기 빚어낸 <뒤주박죽> 뒤주 안팎의 뒤죽박죽 세상을 그린다

김나벳 뉴스토마토 기자

‘봄 작가, 겨울 무대’ 참가작 중 하나인 <뒤주박죽(부제 : 뒤주 속에 들어있는 게 무엇인가?)>은 참가자 중 최연소인 최준호 작가의 신작 희곡을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 이 희곡에 <달나라 연속극>, <로룡찬 유랑극장> 등을 연출했던 신진 극단 달나라동백꽃의 연출가 부새롬과 배우들이 가세해 11월 5일부터 7일까지 대학교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관객을 만났다. 2013년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자인 최준호의 등단작은 <일병 이운근>이다. 최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일상을 나열하거나 크게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조직의 모순을 깔끔하게 추출한다는 평을 들은 바 있다. 신작 <뒤주박죽>에서도 작가의 이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번 희곡 <뒤주박죽>에서는 쉬운 일상 언어를 사용해 정치 조직의 매커니즘을 간파해낸 후 그 매커니즘 속 모순에 대한 성찰까지 나아간 점이 돋보인다. 작품은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조선 시대 봉당 싸움에 희생돼 뒤주에 갇혀 죽은 비운의 세자,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다룬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저승에서 출장 나온 저승사자 2명을 사건의 관찰자로 내세운다는 설정이다. 이 같은 설정을 통해 작가는 현대 관객과의 연결고리를 적극적으로 무대 위에 가시화한다. 이 두 저승사자는 사도세자의 죽음이 확실치 않으니 8일간 지상에서 대기하라는 염라대왕의 명을 받들어 1762년 조선 영조 38년 5월 밤, 창경궁의 정전(正殿)인 문정전(당시 휘령전) 앞뜰에서 서성인다. 작가는 역사 속에서 극중 캐릭터에 대한 대강의 굵은 선을 빌려오되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다소 자유롭게 이야기를 전개해나간다. 오래 전 역사를 디딤돌 삼아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던지고자 하는 화두는 바로 시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권력욕, 그리고 권력을 쥔 자들이 느끼는 권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다.

<뒤주박죽>은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데서 오는 무게감 혹은 부담을 과감히 털어내는 대신 정쟁으로 인한 희생, 정치의 냉혹한 속성, 권력을 쥔 자의 끝없는 욕망 등을 차근차근 담아내며 어렵지 않게 동시대 관객과 소통할 거리를 확보했다. 공연은 권력 작동의 매커니즘과 그 밑바탕에 깔린 인간 본성을 공연내용의 바탕으로 삼되 여기에 연극적 표현과 설정을 적극적으로 덧입혔다. 이 극에서 사도세자가 영조의 영향력 아래에서 고통 받고 있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는 (뒤주가 아니라) 영조를 알현하는 문 앞에서부터 길게 뻗어 나온 천이다. 사도세자의 몸은 이 천에 묶인 채 무대 전역을 배회한다. 다만 이 같은 선택은 뒤주라는 공간성에서 비롯되는 억압의 무게와 그 억압에 따른 사도세자의 고통을 다소 약화시킨 면이 있다. 가장 아쉬운 대목은 부제에서 또렷이 제시한 작가의 질문, 즉 ‘뒤주 속에 들어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극 초반부터 다소 쉽게 짐작 가능하다는 점이다. 극에서 목소리만으로 등장하는 영조는 시종일관 위압적 태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평면적 인물로 비춰진다. 극 중 캐릭터 또한 주제와 구조 안에 함몰되면서 다소 도구적으로 그려졌다. 특히 저승사자 캐릭터의 경우가 그렇다. 시간체계에 오류가 생겼다는 설명이 잠깐 나오기는 하지만, 선글라스와 캐주얼 차림을 한 채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는 ‘현대인 저승사자’가 수백 년 전 이미 죽은 인물인 사도세자를 다시 찾아가는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하게 느껴진다. ㉮



엇갈리는 택배를 소재 삼아 소외된 인간 그린 <택배 왔어요!> '택배' 상자 속에 우리 사회의 그늘을 담다

김나벳 뉴스토마토 기자

올해 ‘봄 작가, 겨울 무대’의 마지막 무대에 오른 작품은 이미경 작가와 장우재 연출의 <택배 왔어요!>다. 사실 신에 작가와 연출가의 허니문처럼 여겨지는 ‘봄 작가, 겨울 무대’에 이미경 작가와 장우재 연출가라는 조합은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미경의 경우 올해 초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작가이긴 하지만 이미 지난해 주요 연극상을 휩쓴 작품 <그게 아닌데>의 집필로 대학교에서 큰 주목을 끈 바 있다. 장우재 연출가는 <여기가 집이다>, <차력사와 아코디언> 등으로 안정적인 연출력을 인정받고 있는 중견 연출가다. 김미경 작가가 전작에서 선보였던 속도감 있는 사건 전개 방식, 소외된 인간을 동물에 비유하는 수법 등은 이번 신작 <택배 왔어요!>에서도 중요한 극작술로서 활용된다. <택배 왔어요!>는 평범한 4인 가족의 집에 어느 날 갑자기 배달된 의문의 택배상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바탕 소동을 그린다. 극의 주된 재미는 ‘물건’을 주문한 일이 없는 정승일 가족과 택배 발송처 간 벌어지는 반송과 재발송의 치열한 신경전에서 발생한다. 택배 상자가 소란스럽게 이리저리로 바빠 오가는 사이 한 인간의 소외가 발생하고, 마침내 그 소외된 인간은 택배 상자에 실린 채 비참하게 버려지는 유기전에 비유된다. 우스꽝스러운 한바탕 소동 속에서도 어느새 비극적 상황으로 치닫는 이야기의 힘이 작품 전체의 무게중심을 잡는다. 장우재 연출가는 극 전개상 필요한 공간 중 몇 곳을 무대 위 한 공간에 중첩시켜 표현하면서 이 희곡이 지닌 상징성을 부각시킨다. 정승일의 집 벽면은 반투명한 사막으로 처리돼 있어 보통 때는 벽처럼 보이다가 강한 조명을 받으면 그 뒤편 공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노출한다. 이곳은 장면에 따라 때로는 정승일 집 화장실로, 때로는 택배사 사무실로 둔갑한다. 번비를 앓고 있어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가정의 모습, 그리고 고객의 수신 거부로 배송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무실 직원의 모습은 극중 어느 대사처럼 ‘묘하게 겹치며 아이러니를 자아낸다.

작품은 이처럼 현대인에게 일상이 된 택배 서비스라는 소재에 기상천외한 상상력을 덧붙이면서 이슬이슬한 긴장감과 유머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다만 몇몇 캐릭터의 경우 동시대 현실을 반영한 일부 설정이 배역에 적절히 녹아들지 못해 아쉬움을 자아냈다. 정승일의 아내이자 마트의 비정규직 노동자 송미란이 동료들의 데모를 비난하며 돈 벌이에만 급급해 하는 모습은 극 도입부에서 잠시 스치듯 언급된 후 더 이상 부각되지 않는다. 또 정승일·송미란 부부 외에 두 명의 아들, 할머니, 택배센터 사장 등의 경우 뚜렷한 캐릭터 없이 이야기 진행을 위한 도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인물의 상당수가 도식적으로 그려지는 까닭에, 긴장감 넘치는 사건을 바탕으로 한 희곡임에도 불구하고 중간 중간 극의 밀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배우들은 캐릭터 상 비어 있는 부분을 대부분 유머 코드로 채워 넣었지만 이는 대안적 선택일 뿐 역할 구축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동시대 현대인의 초상을 짚어내 있는 극적 구조에 담아낸 이 작품이 일부 아쉬운 점을 보완해 더욱 견고한 모습으로 다음 무대에 오르기를 기대해 본다. ㉮



〈새내기 기획자의 눈으로 본 '봄작가, 겨울무대'〉 예술가의 상상력을 관객과 만나게 하라



올해 6회를 맞이한 '봄작가, 겨울무대'가 11월 17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봄에 전년도 신춘문에 희곡부문 당선 작가들을 만나 희곡 집필을 의뢰해 작품을 선정하고 연출가와와의 만남을 시작했던 여름, '가을낭독회'를 통해 관객과의 첫 만남을 가졌던 가을을 지나 고민과 노력의 결실로 무대에서 관객을 만나니 겨울이다. 작년과 올해, 두 번의 '봄작가, 겨울무대'라는 여정에 제작기획 스태프로 함께했던 시간을 통해 느낀 점들을 풀어본다.

2012년 9월, 기획으로 참여해보고 싶었던 프로젝트인 '봄작가, 겨울무대'에 제작기획 스태프로 참여하게 돼 무척이나 기뻐했다. (대학교 코미디페스티벌) 종료 직후 바로 투입이 된다 '봄작가, 겨울무대'에 대한 업무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다. 2013년 4월, 지난해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뿔> 재공연과 얼마 전 마무리한 올해 '봄작가, 겨울무대'는 실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2년에 '봄작가, 겨울무대'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참여 관계자들을 통해 수동적으로 이해하기만 하려했다면, 올해는 프로젝트를 통해 무대화되는 각 작품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기획자로서 각 작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더 나아가 사업진행방식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지 등 좀 더 폭넓은 주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고민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가을 낭독회 후 가진 스페셜 나이트

차세대 공연예술가를 위한 지원, 그 이유는

'봄작가, 겨울무대'와 비슷한 지원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조사해본 결과 국내 많은 단체들이 차세대 공연예술가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누구나 언제든지 초고를 제출하고 드라마터그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상시투고 시스템'을 운영 중인 남산예술센터의 '초고를 부탁해', 예술적인 비전이 분명하고 잠재력이 큰 예술가들을 선정하여 3~5년 동안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는 두산아트센터의 '창작자육성 프로그램', 신인 뮤지컬 및 연극 창작자를 대상으로 작품개발을 지원하는 CJ문화재단의 'CJ 크리에이티브 마인즈', 5인의 작가를 선발하여 1년간 작품을 개발하고 선정된 한 작품에 다음해 서울연극제 공식참가작 자격을 부여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코공연예술인큐베이션 사업(2012년 종료), 심사를 통해 선정된 희곡을 극단과 매칭하여 서울연극제 공식참가작으로 선정하는 서울연극협회의 '희곡아 숲이리', 민간극단으로서 보기 드물게 지금까지 23편의 창작 희곡을 꾸준히 무대에 올려온 극단 작은신화의 '우리연극만들기, 희곡 선정부터 멘토링과 무대 구현까지 함께 참여하여 지원하는 극단 여행자와 서강대 메리홀의 '청춘단막장' 등이 바로 그것이다.

주체의 형태, 사업규모, 예산, 추진방법 등 사업마다 각기 다른 형태를 띠고 있지만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창작공연에 대한 욕망과 실험정신, 그리고 동시대성에 대한 주목'이었다. 대학로의 중심에 위치하여 '동시대와 미래지향적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한국공연예술센터가 '봄작가, 겨울무대'를 탄생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봄작가, 겨울무대' 포스터 2008~2013

봄작가 = 신춘문에 희곡부문 당선작가?

'봄작가, 겨울무대'는 차세대 공연예술가 중 희곡작가, 그 중에서도 신춘문에 희곡부문 당선작가, 2012년부터는 더 세부적으로 전년도와 당해년도 당선작가 중 참여를 원하는 작가를 대상으로 대본심사를 통해 선정된 4작품별로 독자적인 무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선정방법이 변화하였다 하더라도 1차 고려대상이 10여 명으로 작은 인력풀을 형성, 그 중에서 집필을 중도 포기하는 작가들도 있어 좋은 희곡의 탄생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다.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지 않았더라도 작품을 무대화해본 경험이 있는 작가들까지 포함하는 것과 같이 다른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의 범위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희곡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물음이 생겼는데, 무용, 대본, 퍼포먼스, 대본 등 다양한 공연예술에 대한 도전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장르에 대한 고민으로도 이어져 연극뿐만 아니라 무용, 복합장르 등 다양한 장르를 망라한 공연의 개발을 봄에 시작하여 겨울에 무대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가능하다면 그 다음해 봄에 무대화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당해 예술가와 이듬해 예술가가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김소영 김소영은 연극 AD로 1년 반 동안 한국공연예술센터 공연기획부에서 근무했다. 예술의전당을 통해 문화예술계에 발을 들였으며, 또 다른 도약을 위해 준비 중이다.

여섯 번째 '봄작가, 겨울무대'를 마무리하며

지난해 '봄작가, 겨울무대'가 작가와 연출 간의 성공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면, 올해 '봄작가, 겨울무대'는 경쟁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최우수작품 하나를 선정하여 다음해 재공연 하였다) 작업에 있어 진정성 있고, 집중도 높은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지난해 작가와 연출이 다른 작품으로 협업을 시도하고, 작가들이 다른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한발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봄작가, 겨울무대'라는 프로젝트에 대해 더욱 더 애정을 갖게 되었다. 올해는 각 팀의 작업과정을 보며 경쟁만이 작업의 몰입도를 높이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과정에 충실하면 그 결과가 무대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창작공연의 성공적인 레퍼토리에 대한 가능성을 엿본 해이기도 했다. 그야말로 두 번의 '봄작가, 겨울무대'는 지속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앞으로 일곱 번째 '봄작가, 겨울무대'를 위해 함께할 제작기획 스태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감히 진심을 다해, 진정성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임해달라는 당부를 전하고 싶다. 모든 공연이 협업을 중요시 하지만 좀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의 애정 어린 조언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더욱 발전하는 '봄작가, 겨울무대'가 되기를, 이 프로젝트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본다.

우리만 아는 이야기

〈장릉속의 바다〉

〈장릉속의 바다〉는 대학로의 실력파 배우들의 열연으로 기대를 모은 작품이다. 특히 극 중 흥단아와 어머니역의 김보경, 전소현 배우의 북한 사투리는 극의 진정성을 더한다는 평을 들었다. 이는 북한에서 건너 온 새터민 선생님과과의 맹연습의 산물이었다는 후문이다. 작가의 메시지를 온전히 무대에서 풀어내고자 하는 배우들의 연습현장 못지않게, 현찬양 작가 또한 A4용지로 60페이지 이상의 초고를 50페이지로 줄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장릉속의 바다〉는 연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출님의 제안으로 한차례 연극의 제목이 바뀌기도 했다. 초고의 제목이었던 〈장릉속의 연인〉이 흥단아와 재영이의 관계에 의문을 가질 관객들이 있을 거라는 의견에 따라 〈장릉속의 바다〉로 변경되었다.



〈장릉속의 바다〉 커튼콜

〈뒤주박죽〉

단연극대 〈뒤주박죽〉팀은 '봄 작가, 겨울 무대에 참여한 네 개의 팀 중에 가장 끈끈한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뒤주박죽〉의 가족 같은 분위기는 팀 연습으로 이어져서 연극의 장면마다 배우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리허설 현장에서 배우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연극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데, 한 예로 남자 저승사자가 옷 속에서 저승명부를 꺼내는 장면은 강기동 배우님의 아이디어였다는 사실. 〈뒤주박죽〉팀은 공연 이후에도 팀 전원이 〈미사여구없이〉를 관람하는 등 끝까지 '봄 작가, 겨울 무대에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뒤주박죽〉 공연 후



권미영 _ 봄의 '처음 그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향년 24세, 따뜻한 가슴을 지닌 창의적인 열정가, 한국공연예술센터에서 '봄 작가, 겨울 무대' AD로 활동하고 있다.

약 두 달 간의 연습 끝에 초겨울 관객들을 찾은 '봄 작가, 겨울 무대'. 그 무대 뒤 뜨거웠던 스태프들의 열정의 시간을 따라가 보았다. 공연보다 더 흥미진진했던 리허설과 화기애애했던 연습실 구성구석을 살짝 공개한다.

〈미사여구없이〉

〈미사여구없이〉의 연습실을 자주 찾았던 허진원 작가님은 매회 공연마다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응원하러 오시며 작품에 대한 애정을 몸소 표현하셨다. 다른 팀에 비해 유난히 출연 배우가 적었던 〈미사여구없이〉의 무대를 전환하기 위해 지원사격하러 온 고양이 두 마리의 등장으로 극의 생기를 더했다. 〈미사여구없이〉의 바람잡이 역할을 톡톡히 한 고양이들이 무대 감독과 배우라는 사실은 〈미사여구없이〉의 숨은 재미이다. 유난히 단체관람이 많았던 〈미사여구없이〉는 문체부연수단원과 경희대 연극영화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였다. '무대는 왜 흰색인가요?', '중간중간 대사는 애드립인가요?' 등 관객들이 가지고 있던 무대와 연기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채워주는 흥미로운 자리였다.



〈미사여구없이〉 공연 후

〈택배 왔어요!〉

장우재 연출의 전작 〈여기가 집이다〉를 본 관객들이라면 〈택배 왔어요!〉의 세트는 사뭇 반가웠을 것이다. 장우재 연출은 첫 미팅에서 밝힌 '봄 작가, 겨울 무대' 팀의 한번 쓰고 버려지는 세트에 대한 고민을 재활용한 무대로 돌려주었다. 〈여기가 집이다〉의 세트를 재활용한 〈택배 왔어요!〉의 무대는 제작비를 잘 운용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택배 왔어요!〉팀의 리허설 현장은 가슴을 울리는 뭉클함으로 관계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또한 〈택배 왔어요!〉팀은 조명의 기본 세팅을 미리 표로 정리해서 드리는 철저함으로 감독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후문이다. 〈택배 왔어요!〉는 작품을 대하는 연출과 스태프들의 진지함과 배우들의 안정된 연기가 어우러져 공연의 진정성을 배가시키지 않았나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택배 왔어요!〉 커튼콜

청소년과 함께 하는 한국공연예술센터

중학생들의 특별한 공연장 나들이

이상미 한국공연예술센터 공연기획부

용산중학교 1학년 학생 3명이 2013년 11월 11일 한국공연예술센터를 방문하여 직업체험 시간을 가졌다. 한지호, 이준희, 이승철 학생은 한국공연예술센터 공연장과 구성구석을 돌아보며 다양한 직업이 있음을 알아보았다. 공연장에서는 티켓매니저, 하우스매니저, 음향·조명·무대감독과 만나 각각의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사무실에서도 축제 기획자, 연극·무용 프로듀서, 홍보·마케팅담당자, 회계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보았다. 공연장 무대에 서보기도 하고 콘솔과 기계실 등에도 들어가 음향과 조명, 무대의 움직임을 경험해보기도 했다. 한지호 학생은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음향감독이 각각의 스피커에서 돌아가며 노래가 나오도록 해본 음향체험이 가장 즐거웠다고 말했다. "공연 하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절차를 거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라며 매우 신기하고 흥미로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승철 학생은 티켓을 직접 발권해보는 것이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공연 관계자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가볼 수 있어 좋았어요." 이준희 학생도 이승철 학생처럼 매표소에서

티켓을 직접 뽑아 본 것이 가장 재미있었다고 말하며, 공연을 하려면 오랜 준비기간과 많은 인적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나중에 다시 가족과 외보고 싶은 정도로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의 기적(청진기)'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공연예술센터를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을 한 학생들이 직업에 대해 조금이나마 시각을 넓혔기를 기대한다.

수험표 들고 공연 보러가자

한국공연예술센터는 2013년 11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수능탈출 기념 공연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수능을 치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봄 작가, 겨울 무대 〈미사여구없이〉, 〈택배 왔어요〉, 연극 〈전기수〉, 음악극 〈에릭사티〉, 연극 〈환상동화〉에 대한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지참시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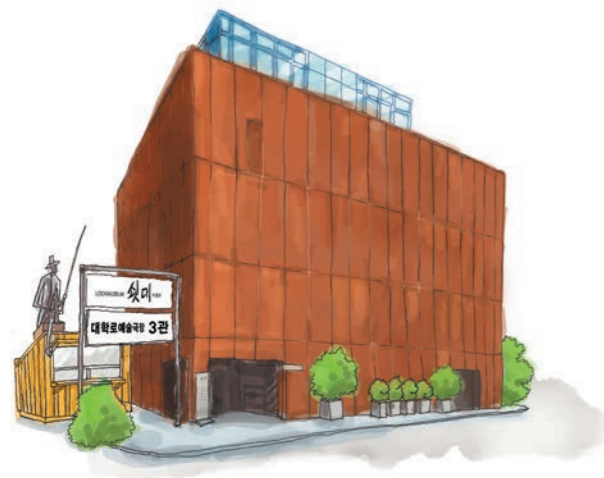
〈봄 작가, 겨울 무대〉 공연을 준비중인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매표소에서

<p>연극 전기수 "장미의 향기, 사자의 열정"을 만나다 2013. 11. 29(금)~12. 08(일) 화-금 8시 / 토-일 3시 대학로예술극장 3관</p> <p>티켓 20,000원 ▶ 10,000원</p>	<p>음악극 에릭사티 2013. 11. 22(금)~12. 01(일) 화-금 8시 / 토 3시 / 일 4시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p> <p>5석 30,000원 ▶ 10,000원</p>	<p>연극 환상동화 "장미의 향기, 사자의 열정"을 만나다 2013. 12. 06(금)~12. 15(일) 평일 4시, 8시 / (토, 일) 8시 / 토 3시 / 일 2시, 6시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p> <p>5석 40,000원 ▶ 15,000원</p>	<p>수험표 들고 공연 보러가자 한국공연예술센터가 자신있게 추천!</p> <p>2013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지참 시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 가능</p> <p>문의 02-3668-0007 (10:00-20:00) www.hanpac.or.kr</p>
--	--	--	--

쾌적한 시설, 최고의 무대 인력, 저렴한 대관료 3박자가 잘 맞는 대학로예술극장 3관

조자영 한국공연예술센터 공연기획부

한국공연예술센터에는 아코예술극장 대·소극장, 대학로예술극장 대·소극장 이외에 한 개의 공연장이 더 있다. 센터와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로예술극장 3관이다. 대학로예술극장 3관은 「대학로 소극장 임대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한국공연예술센터가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으로 싯대박물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다.



「대학로 소극장 임대운영 사업」은 체육진흥투표권 적립금으로 소극장을 임차하여, 공연예술 단체에게 저렴한 대관비용으로 공연장을 제공하고 있다. 거기에 한국공연예술센터의 시스템과 전문화된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창작환경을 조성하여 대학로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동안 해마다 평균 18개의 예술단체가 대관하여 지원혜택을 받았다. 연극 외에도 음악, 무용, 아동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막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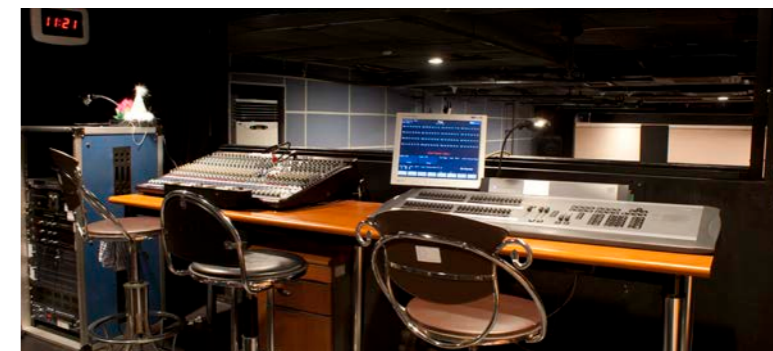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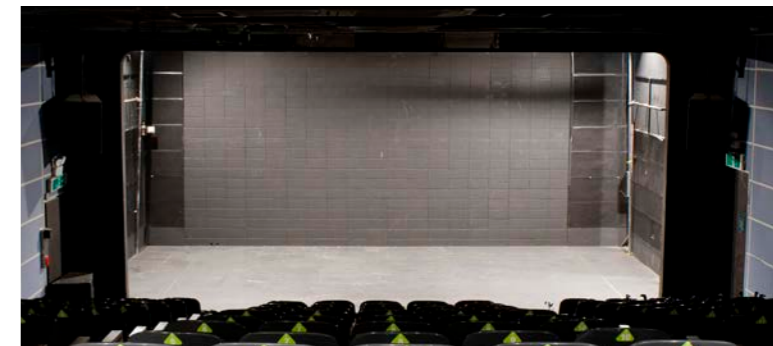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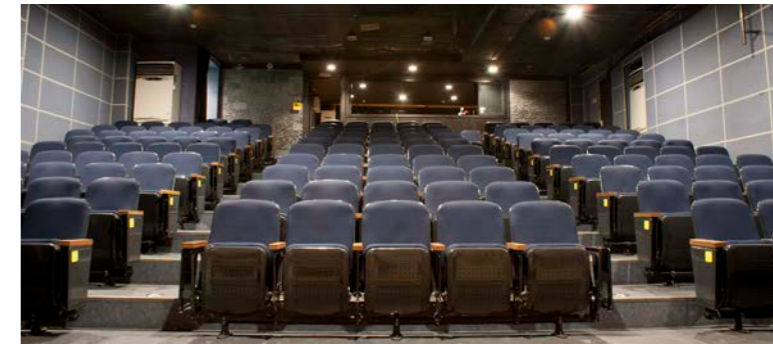
2013년도 9월부터는 기존 1회 공연 기준 290,000원이었던 대관료를 20% 인하하여 232,000원으로(2회 추가 공연 394,000원) 예술단체에게 대관료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센터가 갖고 있는 홍보시스템과 전문 인력, 서비스 인력, 시설 등을 폭넓게 지원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예술단체에게 혜택을 주어 대학로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대관료 인하 외에 풍성한 지원 혜택을 받았던 대관단체들의 이야기이다.

“지난 9월 음악다큐멘터리 〈예쁜 백조 새끼〉를 공연했던 음악동인고물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공연을 진행하기 다소 어려운 상황에서 예상치 못했던 대관료 인하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으로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음악동인고물

“명품극단은 2013년 9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대학로예술극장 3관에서 〈라긴〉과 〈유령〉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연을 하는 단체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점 중 하나가 바로 극장의 대관료인데 대학로예술극장 3관 대관료가 인하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비교적 저렴한 대관료를 비롯해서 한 팩뷰를 비롯해 공연 홍보를 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되고, 공연 시 티켓 발행, 안내 등을 비롯한 부분에 전문 담당자들이 지원되는 점이 좋습니다. 극장의 시설이나 객석, 무대 환경도 좋은 편이고요. 앞으로도 많은 공연이 대학로예술극장 3관에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 명품극단

“대학로예술극장 3관은 시설, 인력, 대관료 3박자가 잘 맞는 쾌적한 공연장입니다. 수준 높은 연극을 만들지만 예산이 넉넉지 않은 소규모 회사들에게 저렴한 대관료로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매 공연에 티켓매니저와 하우스매니저가 파견되어 입장부터 퇴장까지 친절하게 관람객들을 안내해주시는답니다. 또 항상 전문적인 기술 인력이 배치되어 좋은 환경에서 공연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도 좋아서 낙산공원과 싯대박물관 등 공연 전후로 대학로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아 관람객들에게도 더 없이 좋은 공연장인 것 같습니다.” - MJ컴퍼니

대학로예술극장 3관은 163석의 다목적 극장으로 연극, 무용 음악, 뮤지컬, 아동극, 다원예술 등 장르에 구분 없이 다양한 공연을 수용할 수 있다. 대관공연단체에게는 공연장의 기본 조명기기 및 음향기기와 공연장을 포함한 분장실, 대기실 등 편의공간이 제공된다. 그리고 공연기간에는 관객안내원 1인과 매표원 1인의 서비스 인력이 배치된다. 또한, 한국공연예술센터 월간지와 홈페이지에 공연 정보가 게재되고 옥외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다.



국립예술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공연예술센터는 국립예술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문화융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파트너가 됐다. 2013년 11월에는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과 협약을 맺고 공동 프로젝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발레단과 창작발레 공동 프로젝트 협정 체결

한국공연예술센터와 국립발레단이 공연예술 발전을 위해 창작발레 공동 프로젝트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3년 11월 18일 아르코예술극장 2층 회의실에서 열린 협정식에는 한국공연예술센터 박계배 이사장, 국립발레단 최태지 예술감독과 문병남 부단장이 참석했다. 창단 51년의 역사를 잇는 국립발레단은 춤의 사회적 소통과 발레 인재 육성으로 한국 발레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립발레단 최태지 예술감독은 지난 11월 18일 한국발레협회 주최 '2013 한국발레협회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립발레단과 한국공연예술센터는 공연예술을 통한 문화 융성을 위해 창작발레 중장기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양 기관은 향후 진행되는 사업 및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박계배 이사장(왼쪽)과 최태지 예술감독

국립현대무용단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공연예술센터는 국립예술단체 운영 효율화를 위해 국립현대무용단과 2013년 11월 26일(화) 오전 10시 씨어터카페에서 협약식을 갖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식에는 한국공연예술센터 박계배 이사장, 국립현대무용단 안애순 예술감독,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김정훈 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공연예술센터와 국립현대무용단은 국립현대무용단에 대한 우선대관 지원, 공동창작 및 협력활동 전개, 기타 양 기관이 공동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2014년에는 양 기관 간 실질적 협력 도출을 위한 대표 공동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며 이 사업에는 다른 예술기관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박계배 이사장(왼쪽)과 안애순 예술감독

〈제34회 서울무용제〉 열려

2013년 10월 29일, 한국 무용계의 대표적인 축제인 〈제34회 서울무용제〉 개막식이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2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가는 〈서울무용제〉 개막식은 김복희 한국무용협회 이사장의 개회선언과 내빈 대표인 한국공연예술센터의 박계배 이사장의 축사로 장식됐다.

이날 내빈으로는 박계배 이사장을 비롯하여 한국연극협회 윤봉구 이사장, 한성기업 임우근 회장, 혼다코리아 정우영 대표, 한순옥 고문관 등 문화예술계와 재계의 유명 인사들이 함께했다. 축하공연은 취타대의 국악무대와 임종경, 손주은의 현대무용, 그리고 유니버설 발레단의 발레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국립무용단 단원 조재학과 대전대 서은정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은 수많은 예술계 인사들이 모여 뜨거운 관심 속에 시작됐다. 한국무용계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은 〈서울무용제〉는 올해 참가팀 17개 무용단을 비롯, 축하공연까지 약 50개의 단체가 참여했고 아르코예술극장 앞마당을 활용한 야외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냈다. 11월 17일에 진행된 폐막식은 시상식과 함께 이뤄졌다. 총 10개의 수상부문 중 5관왕을 차지한 가림다넌스컴퍼니 〈초인(超人)-Nietzsche's Speech〉의 활약이 돋보였다.



개막식-김복희 이사장의 개회선언

개막식-박계배 이사장의 축사



서울무용제 개막식 리셉션

사진제공, 뉴스테이지 정지혜 기자

이달의 도서



겹겹

안세홍 저 / 서해문집 / 16,000원

어느덧 8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다. 그 세월 동안 잊어본 적도 없고 잊을 수도 없었다. 그 악몽은 또 다른 악몽을 낳기도 했고, 그때의 상처가 몸의 구석구석에 새겨져 평생을 따라다녔다. 전쟁이 끝난 후 돌아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돌아올 길을 몰랐거나, 돌아갈 곳이 없었거나, 혹은 자신의 아픔이 가족의 부끄러움이 될까 숨어야 했다. 중국에 남겨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이다.

저자는 18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났고, 타국에 있는 할머니들을 만나 그들의 사진과 이야기를 남기고 있다. '겹겹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어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것은 그런 노력이 엮어낸 역사이며, 시대의 슬픔이며 아픔이다. 때론 한 장의 사진이 한 사람의 생을 이야기하는 법이라서 할머니들의 사진을 보고 있다면 그 글들이 다 소용없어진다. 그 눈이, 그 행동이 이야기하는 깊은 슬픔은 이내 독자의 마음에 파고든다. 원망의 말은 결코 하지 않지만, 슬픔이 파고든 마음은 자책을 시작한다. 왜 잊고 지냈는지, 왜 한 번도 손을 내밀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모든 상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량원다오 저 / 흐름출판 / 14,000원

도서 『모든 상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중국의 알랭 드 보통이라 불리는 '량원다오'의 작품으로, 그가 2006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기 형식으로 매일 한 편씩 써내려간 자기 해부의 시문이다. 그리고 저자가 자신의 내면을 향해 던지는 작은 돌멩이며, 그의 극단적인 자기 해부를 통해 상처와 슬픔을 날날이 폭로한다. 저자 스스로는 『모든 상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에 대해 '여정 중에 몰래 슬픔을 닦은 결과'라고 말하는데, 이는 달콤함과 몽상, 타락과 위험 등 모든 의미를 함축하는 묘사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십시일반

이희재, 박재동, 손문상 저 / 창비 / 10,000원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하에 완성된 시사 만화집. 밥 한술씩 퍼 담아 밥 한 그릇 내놓듯이, 열 명의 만화가들이 십시일반하여 한 권의 책을 만들었다. 그들이 정한 공통된 주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 열명이 모여 만든 책 한 권으로 그 차별에 맞서겠다는 의도다. 박재동 화백은 '여자 + 가난한 사람 + 외국인 노동자'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지적하고, 이희재 화백은 다리가 불편한 여학생의 고군분투 학교 생활기를 리얼하게 담았다. 소수자가 겪어야 하는 부당한 처우와 이를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한 만화집이다.

잘 지내라는 말도 없이

김동영 저 / 달 / 12,000원

어느 날 여고생 소녀가 물었다. 젊음을 어떻게 아껴야 하는지. 카페 여주인이 묻는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역시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다. 그는 새롭게 만난 소녀와 카페 여주인과의 관계에서 깨닫는다. 정말로 아름다운 순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불사의 시대. 오십대의 외모로 90이 되어버린 할아버지와 중년의 카페 여주인, 그리고 말괄량이 여고생. 이렇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왔으면서도 그 누구보다 서로를 가장 이해하는 친구가 되어버린 세 사람은 세대를 넘나들며 인생의 고독과 아득함을 이야기한다. 그들이 보여주는 끈끈하고도 서늘한 사랑과 우정 사이의 감정들은 그동안 우리가 잊고 지냈던 것들을 조용히 일깨워준다.



theater cafe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건강한 겨울 음료

고구마라떼와 검은콩라떼
각 5,000원

영업시간

월 09:00 ~ 22:00
화~금 09:00 ~ 23:00
토.일.공휴일 10:00 ~ 22:00

위치 대학로예술극장 1F

문의 02-3668-0140

- * 당일 한팩 티켓 소지시 15% 할인
- * 당일 대학로 소재 타극장 티켓 소지시 10% 할인
- * 공연예술인 10% 할인

book+stage

공연예술 전문서점

영업시간

월 오후 12시 ~ 오후 6시
화~일 오후 12시 ~ 오후 9시
(공휴일 휴무)

위치 대학로예술극장 1F

문의 02-3668-0121



2012 제18회 한국뮤지컬대상
극본상 수상
명작 뮤지컬의 탄생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

2014.1.15(수) ~ 2.2(일)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예매 02-3668-0007



모든 세대를 사로잡는 단 하나의 뮤지컬!

뮤지컬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동화속에 숨겨둔 가슴아픈 사랑 이야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뮤지컬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2014.1.24(금) ~ 2.19(수)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예매 02-3668-0007

ARTS MANAGEMENT CONFERENCE

2013 예술경영 컨퍼런스

시상내용

분야별 1개 우수단체 (총 3개 단체)에
각각 500만원 시상금과 함께 문화
체육관광부장관,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수림문화재단이사장 명의의
표창장 수여

일시 및 장소

2013. 12. 10(화) 오후 1시
KT올레스퀘어 1층 드림홀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주관 : 예술경영지원센터

후원 : 수림문화재단

자세한 사항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gokams.or.kr)를 참조
해 주세요.



2013 예술경영 컨퍼런스에서는 전문예술
법인·단체의 예술경영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9개 사례에 대한 사례발표를
진행합니다. 예술 현장의 다양한 운영사례를
발굴하여 함께 나누고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프로그램 <<

시간	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
13:00~13:30	접수	참가신청 확인 및 접수
13:30~13:40	오프닝 공연	오프닝 공연
13:40~14:00	개회	개회사 / 인사말 / 환영사
14:00~16:40	분야별 사례발표	사업기획 및 수행 / 조직운영 / 재원조성 및 기타분야 총 3개 분야 사례발표
16:40~17:00	현장투표 및 휴식	현장투표 & COFFEE BREAK
17:00~17:15	심사총평 및 분석	심사 총평 및 사례분석
17:15~17:30	우수사례 시상식	우수사례 시상
17:30~17:45	폐회 및 정리	컨퍼런스 폐회 및 정리

참가 안내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www.gokams.or.kr 를 통해 사전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참가대상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분야별 경영사례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기간 : 2013. 11. 4(월)~ 12. 3(화)

문의 Tel 02-708-2248/2249 E-mail april@gokams.or.kr www.gokams.or.kr

투리스모와 함께 인생을 **레저모드**로 바꿔라!
 레크리에이션 베이스캠프

[코란도 투리스모] 탄생



스포츠한 스타일, 파워 사륜구동, 서브 프레임으로 더욱 안전한 SUV	후륜구동과 제어맨W의 멀티링크로 승차감 최상의 Sedan	넓은 11인승, 저렴한 자동차세, 버스전용차로 이용의 실용적인 MPV
---	--	---

이 모든 자동차의 장점만을 모은 Premium MLV(Multi Leisure Vehicle)
 또 하나의 코란도 [코란도 투리스모]

Exterior Color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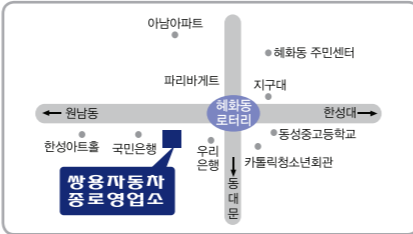


그랜드 화이트 Grand White : WAA 파인 실버 Fine Silver : SAF 사이버 그레이 Cyber Gray : ABS 와인 블랙 Wine Black : WAF 스페이스 블랙 Space Black : LAK



차량상담 및 시승예약
 쌍용자동차 종로영업소

02-741-7677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KB금융그룹

국가대표
 연아나 연재진과 함께 하는
 국민행복
 환전서비스



KB를 만나면 환전도 즐거워집니다-KB국민은행 환전서비스

- 전 세계 38개국 통화를 편리하게, **KB네트워크 환전** - 인터넷뱅킹, 영업점에서 신청하고, 외화현금은 공항에서 받으세요
- 중국여행이 즐거워지는 **중국위안화(CNY) 환전** - KB국민은행에서 중국위안화(CNY)를 환전하고 환전비용을 아껴보세요
- 더 똑똑하고 실속있는 **인터넷 맞춤형 환전 서비스** - 원하시는 환율에 도달하면 KB국민은행이 똑똑하게 환전해 드립니다

※ 상기 환전서비스 내용은 당행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187호 (2013. 3. 18)





한국공연예술센터
Hanguk Performing Arts Center